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2017학년도 관리자 연수

○ 일시

중등 관리자: 2017. 5. 23.(화) 09:30~17:00

초등 관리자: 2017. 5. 24.(수) 09:30~17:00

○ 장소: 인천 하버파크 호텔

○ 주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일 정 표

순	시간	시량	내용	비고
1	09:00~09:30	30'	• 등록 및 안내	
2	09:30~09:40	10'	• 개회	
3	09:40~12:10	150'	•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 1일차: 한양대학교 교수 유성호 - 2일차: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4	12:10~13:10	60'	• 점심식사	
5	13:10~14:00	50'	• 문화예술 공연 - 1일차: 인천영종초 하늘울림 - 2일차: 인천능허대초 우쿨맘스 - 성악과 함께(Brillante 공연단)	
6	14:00~15:00	60'	• 학부모회 학교교육참여 인식 개선 - 서울대학교 교수 최혜영	
7	15:00~15:10	10'	• 휴식	
8	15:10~16:10	60'	• 대안교육 운영 사례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사례 - 학생자치의 꽃을 피우다 - (초) 초등가정Wee센터 운영 사례 (중)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	
9	16:10~16:50	40'	• 행정사항 안내	
10	16:50~17:00	10'	• 폐회	

❀ 목 차 ❀

❖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1. 우리가 도와야하는 아이들, 도움을 바라는 아이들 9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 현 수
2. 청춘의 인문학 34
한양대학교 교수 유 성 호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3.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인식개선 49
서울대학교 교수 최 혜 영

❖ 대안교육 운영 사례

4. 늘 품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71
인천청천초등학교 교장 최 미 숙
5. 대안학급 사례발표 83
송도고등학교 교장 오 성 삼
6. 자연 평화 상생의 산마을 학생자치문화 98
산마을고등학교 교장 안 성 균, 교사 한 정 수
7.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정형 위(Wee)센터 사랑나무 104
초등행복한가정위센터 센터장 김 진 형
8. 2017 한오름학교 120
한오름학교 교사 최 동 석

❖ 행정사항 131

❖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 우리가 도와야하는 아이들, 도움을 바라는 아이들
- 청춘의 인문학



1 우리가 도와야하는 아이들, 도움을 바라는 아이들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 현 수

김 현 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장학교 별

우리가 도와야하는 아이들, 도움을 바라는 아이들



시대의 변화

- 빈곤시대에서 개발도상국 시대에서 OECD 가입국가 (괜히 가입한 국가?)
→ 저성장 불완전 고용시대로의 진입
- 저성장 사회의 자아는 고성장 사회의 자아와 다르다!
- 아주 느리게 발전하거나, 발전하지 않고 있다가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기분
- 격차와 불평등사회 : 모든 면에서 격차와 불평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분
- “하면 된다 → 해도 소용없다, 안하는 것이 낫다” 로의 전환
- 청년담론의 키워드 : 88만원세대 - 잉여 - 헬조선 & 수저론
- 어른이 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 “안하는 것을 더 하기”가 소망인 다수 대중의 사회

아름께, 다 컸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 어른 ’ 이 될 수 없다. 결혼할 집 한 칸에 대해 염두를 낼 수 없다. 부모세대도 죽도록 고생해서 대도시 집 한 칸이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도시에 집 한 채 장만하려면 부모세대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돈을 벌어야 한다.

몸은 어른이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아이이다.

-

최근의 슬픈 시도

성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고등학생

- ❑ 수능 5일전에 시도
- ❑ 입원해서 수능을 치름
- ❑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
- ❑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기
- ❑ 학교도, 가족도 알지 못함

가족의 갈등을 자신의 탓으로 여긴 여학생

- ❑ 가족의 갈등과 불화를 자신탓으로 여김
- ❑ 자신을 지지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시도
- ❑ "가족에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친구에게 버림받았다"
- ❑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기
- ❑ 학교도, 가족도 알지 못함



4 Horsemen

숨쉬기 힘든 아이들의 4가지 이유

부담스럽다

- ❑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 ❑ 부모의 삶의 이유
- ❑ 과잉보호
- * 우리는 왜 사는가?

외롭다

- ❑ 작은 가족
- ❑ 힘든 것을 말할 수 없음
- ❑ 다른 어른이 없음



4 Horsemen

숨쉬기 힘든 아이들의 4가지 이유

힘들다

-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들다
- 숨쉬기도 힘들다
- 이 고통이 계속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희망이 없다

-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날 것 같다
- 달라질 것이 없다
- 난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청소년기 자살의 정신역동적 특성

- 외로움 :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 파멸감 :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상태가 되었다는 느낌
- 쓸모없음 :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되는 느낌
- 피해의식 : 온통 주변이 자신에게 피해만 주고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
- 무력감 : 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 그리고 소통의 부재

(Moses Laufer, 1995)





Baumeister의 자살 수레바퀴이론

1.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 수준이 높는데 반해 현실의 수준이 미치지 못할 때
2.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가 자신의 탓이라고 여길 때
3. 주위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다고 생각할 때
4.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태가 될 때 -몰락
5. 살아가야할 이유를 제거하기 시작할 때



T. Joiner 의 세 가지 자살 결정요인

고통의 길이, 긴 고통, Long humble life

나눌 수 없고, 혼자 짊어져야하는, Only burden by self

외로운, 갈 곳이 없는, Feeling of Alon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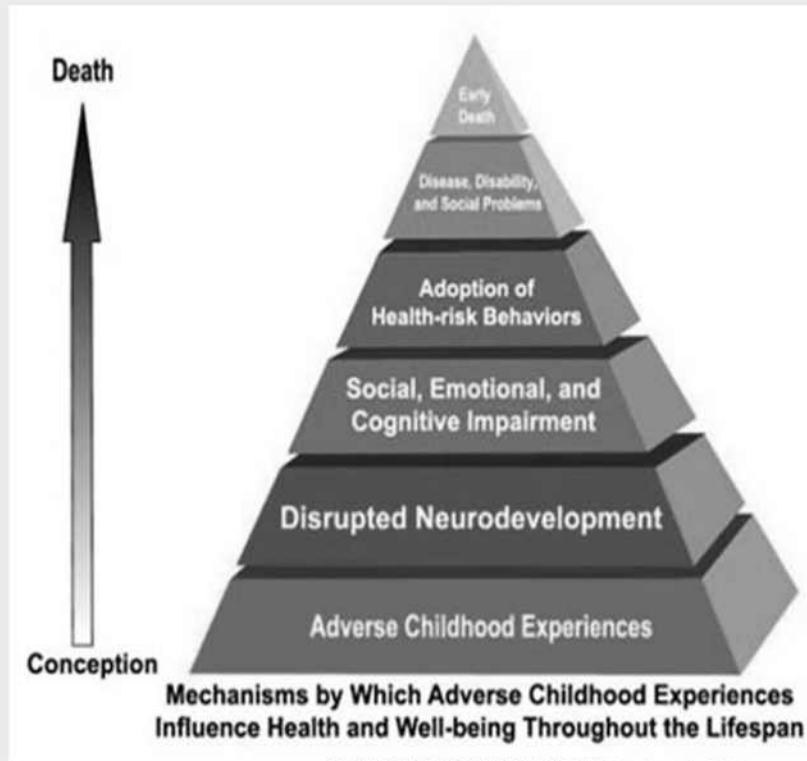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 ☐ 1. Recurrent physical abuse
- ☐ 2. Recurrent severe emotional abuse
- ☐ 3. Contact sexual abuse
- ☐ 4. Physical neglect
- ☐ 5. Emotional neglect
- Growing up in a household...
- ☐ 6. where someone was in prison
- ☐ 7. where the mother was treated violently
- ☐ 8. with an alcoholic or drug user
- ☐ 9. where someone was chronically depressed, mentally ill, or suicidal
- ☐ 10. where at least 1 biological parent was lost to the person during childhood, regardless of the cause.

- ☐ *"Young children cannot manage most dangers"-
Patricia Crittendon, 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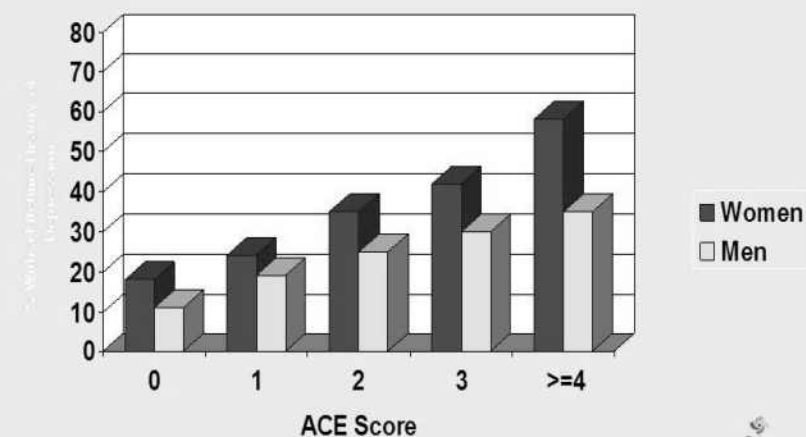
- ☐ **Positive stress response**
- ☐ **Tolerable stress response**
- ☐ **Toxic stress response**



Family Centered Regional Child Abuse Prevention Council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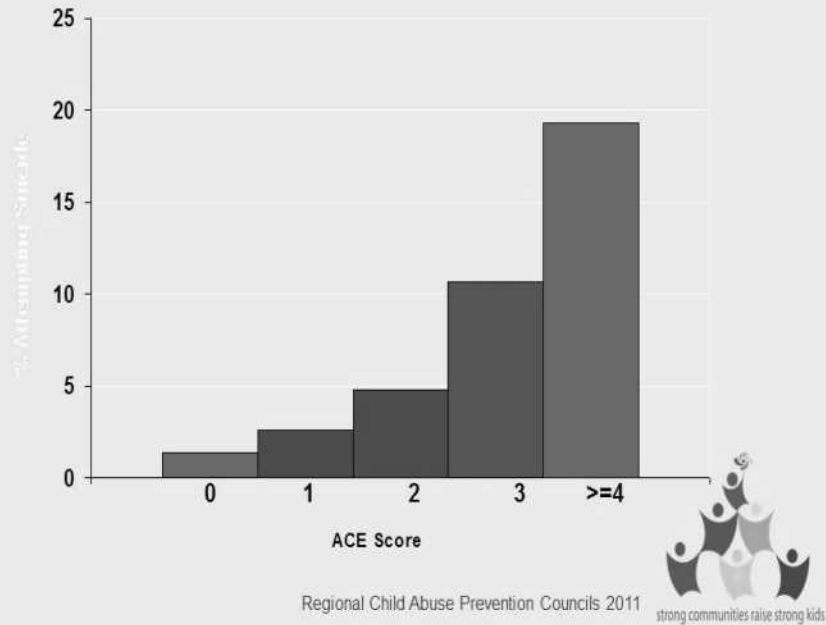
Childhood Experiences Underlie Chronic Depression



Regional Child Abuse Prevention Councils 2011



Childhood Experiences Underlie Later Suicide



청소년기의 심리적 위기에서 초자아는 암적 존재이다

나지오, 프랑스 정신분석가, <위기의 청소년>

자녀, 학생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 부모와 선생님은 생각해봐야 한다. 자기중요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 마이클 아이건
사랑을 주려는 욕구에 굶주려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이상화한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의해 자신이 소멸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을 보호해야 생존한다. — 크리스토퍼 볼라스
살아 있다는 느낌을 선한 느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들은 살아 있다는 것이 주변에 얼마나 해를 미치는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도록 경험했다. — 마이클 아이건
성공이 사회적 기준이라면 새로운 비도덕적 인간은 실패자이다. 파울 페르하에허



어버이날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 (단위:%)

전교 1등 성적표	51.5
직접 쓴 편지	23.2
용돈을 모아 준비한 선물	13.2
카네이션	12.1

자료: 토즈, 전국 고교생 3500명 설문조사

숨을 크게 쉬고, 돌아보고, 긴장을 덜하고, 외롭지 않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아이들 돕기



요즘 아이들은
왜 더 힘들어할까? 힘든세 가지

자극



부담



도울
사람





힘들지 라고 먼저 말해주세요

'힘들지' 라고 먼저 말해주세요
 '뭐가 힘드냐'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너만 힘든 거 아냐' 라고 하지 마세요
 '아 그랬구나' 라고 해주세요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라고 하지 마세요
 '넌 문제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더 잘 할 수는 없니' 라고 하지 마시고
 '괜찮아' 라고 해주세요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고 또 들어주세요
 그 다음엔 그래 '조금은 이해해' 라고 해주세요
 전부 이해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작은 이해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삶이 다시 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왕이면 다 듣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실 수 있다면
 '말해줘서 고마워, 참 고마워' 라고 해주세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그러면 우리 서로는 살아날 거예요
 더 조금은 가까워질 거예요
 작은 행복을 느낄지도 몰라요
 (환자의 말을 정리, 김현수)



가족과 학교

가족

- ☐ 공지사항 가정에서 벗어나기
- ☐ 정서적 반영이 있는 가족 만들기
- ☐ 적정한 목표
- ☐ 쉼 시간 만들기, 대화
- ☐ 세대차 감소
- ☐ 존재로 사랑하기

학교

- ☐ 관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관심
- ☐ 상실에 빨리 반응하기
- ☐ 쉼 시간 만들기, Circle Time
- ☐ Group Breathing space
- ☐ 낙심하지 않게 하기 - 격려와 칭찬의 학교



귀찮아하고, 변덕이 끓고, 까칠한, 게으른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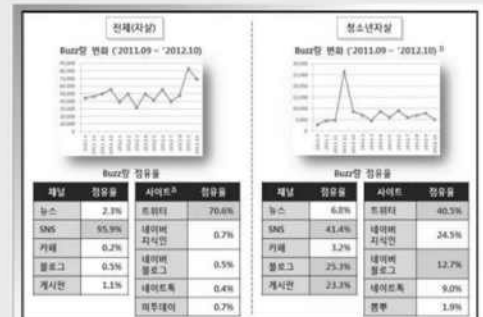
우울하고 슬프다가 아닌 다른 감정 표현 : 짜증나, 몰라, 싫어, 귀찮아 달고 사는 아이
 감정의 전염성 : 변덕, 자기중심적인 아이
 거부 과민성 : 짜증스럽고, 불만에 차고, 까칠한 아이
 지연수면, 폭식 : 게으르고 한심한 아이



청소년 우울증 - 비전형 우울증, 가면 우울증

말도 통하지 않고
 말할 사람은 없고
 격려와 위로는 없고
 큰 부담 속에서 경제적인 자수성가는 하지 않지만
 정서적 자수성가의 길을 걷고 있다

외로운 아이들이
 말하지 못하던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사회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아이들은 힘들다



Trauma Sensitive School

Key Word

- 아동기 부정경험 연구(ACE)와 그의 활용, 의미, 지속성
- 트라우마는 가장 흔한 아동·청소년기 문제이다
- Trauma sensitive lens (view) 그래서 트라우마에 민감한 관점이 필요하다
- 트라우마에 관한 교사의 역할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 1. 트라우마를 감지하는 교사되기(트라우마 감지자)
 - 2. 안전한 공간 만들기(공간 창조자)
 - 3. 안전한 느낌 만들기(안정 안내자)
 - 4. 긍정적 행동 제안하기(긍정행동 제안자)
 - 5. 몰입적 활동 진행하기(몰입활동 진행자)
- 트라우마를 안정시키는 일곱 가지 기본 기술
 - 1) 흥분 가라앉히기 2) 마음챙김 3) 관계의 활용 4) 공동의 리듬만들기
 - 5) 마사지 6) 대응행동 가르치기 7) 고백적 글쓰기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학급운영 설계하기

- 아침을 여는 모임
- 상태를 안정시키는 호흡체조와 마음챙김
-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대비
- 안정된 아이들을 위한 효과적 학습법
- 흥분한 상황에서 덜 창피하게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 예방적 대처요령
- 헤어지는 모임
- 학급 이외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
- 치료적 수업 (Socio-Emotional Learning) : 감각훈련, 분노조절, 의사소통, 낙관주의, 심리안정, 마음챙김, 명상, 예술수업 등등
- 긍정훈육법 (Positive Behavioral Approach)
- 개별적 정기적 면담
- 만성적 독성 스트레스에서 지속적 긍정격려체계로의 전환
- 교정적 애착을 위한 관계 시스템 만들기



트라우마에 민감한 학교운영 구성요소

- 교사 교육 및 수퍼비전
- 신경학적 특징을 반영하는 교육
- 학급운영: 개별화 교육과 질문식대화법에 기반한 교육
- 관리 절차
- 훈육원리
- 협력과 파트너십
- 부정적 경험이 많은 아이들을 다루기 어려운 이유
 - 1) 부정적 경험 자체의 강도
 - 2) polyvictimization: 집, 동네에서의 피해자가 학교에서의 피해자가 된다
 - 3) 축적되는 트라우마: 반복된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축적된다
- **좋은 소식**
- 부정적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치료의 기회 (트라우마와 신경발달에 대한 교육과 치료)
- 불안정 애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관계로서의 교사, 그리고 학교의 경험



School Climate

-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분위기 vs 트라우마를 care하는 분위기
- 레빈의 실험 :
- 권위적인 집단에서의 아이들 분위기와 민주적인 집단에서의 아이들 분위기
- 공포가 만드는 긴장과 갈등, 경직은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경험이 된다. 표정도 없고 권위자가 없을 때는 새로운 폭력체계가 작동한다
- 학급의 분위기를 어떻게 돌봄의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가?



트라우마에 민감한 교사의 학급경영

- 교사 자신의 안정화와 마음챙김 - 아이를 Care 할 수 있는 Self Care의 Ritual
- 둘러보기 Scanning
- 물어보기 Identifying
- 점검하기 Checking
- 제공하기 Reassuring
- 대처하기 Suggesting
- 안아주기 Holding,
- 받아주기 Containing
-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Self-care

- ❑ 교사가 가장 많은 트라우마를 받는다
- ❑ 매일 트라우마의 이야기를 듣고 다루어주고 아이들의 부정적 행동을 받아주어야 한다
- ❑ Compassion Fatigue, Secondary Trauma
- ❑ 아이의 트라우마를 다루어주려면, 교사 자신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어야 한다
- ❑ Cultivating Awareness and Resilience Education in Teachers (CARE)
- ❑ Stress Management And Resilience Training (SMART)
- ❑ 내용 : mindfulness, self-awareness, self-compassion, self-regulation



Mindful Waiting Time Peaceful Silence Time

- ❑ 아이들과 함께 침묵과 고요의 시간 갖기
- ❑ 호흡법
- ❑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짧은 시간 갖기
- ❑ 속삭이는 날
- ❑ 멈춤을 가르치기 (Stop-Observation-Thinking-Consider-Action-Evaluation)
- ❑ 가장 중요한 것은 Stop!
- ❑ GRACE 가르치기
- ❑ G : Gather information – 주변 상황 둘러보기
- ❑ R : Recall my intention – 나의 의도를 살피기
- ❑ A : Attune to myself (body, heart, mind) – 나의 상태를 조율하기
- ❑ C : Consider what will serve my colleague – 내 동료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 ❑ E : Enacting & Ending – 행하고 마무리하기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장학교 별

사례중심으로 살펴 본 청소년들의 자 해, 자살의 동기 변화 이해

자해, 자살의 동기, 요인 변화
성적 부담, 가정 불화, 친구-왕따에서
어떤 유형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을까?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는 무엇일까?



사례 1 : 무의미형 “의미”가 “생존”보다 중요하다

-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출현 1
- 여중생, 여고생들 사이의 하위문화
- ‘귀찮다’
- 살아있는 것, 별 의미가 없다
- 대인관계 너무 피곤하다 : 엄마, 아빠, 친구, 다 힘들다
- 남은 것은 의미가 없는 삶을 더 사는 것이다
- 그러므로 죽고 싶다
- 반복되는 심각한 자살시도
- 배경 : 관심도, 인정도 더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자기애적 손상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반면,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절망, 이 상태를 만성적으로 겪으면서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자해, 자살을 공상하면서 보냄



사례 2 : 고생비관형 “다같이 죽어가고” 있을 뿐이다

- 과거와는 다른 유형 2
- 더 강력한 여학생 중심의 하위문화
- “망했다”, “힘들다”
- 부모나 자신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예상과는 다른 비참한 삶을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한다
- 힘들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인정이 없고 원망스럽다
- 배경 : 기대와 소망을 이루지 못한 자기애적 실망에 덧붙여 소망이나 기대를 앞으로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 무조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통을 견디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문화적 영향

- <자해자의 저택>이라는 유명사이트가 한때 대유행이었음 (오래된 이야기임)
- 작가 로브 @오스키
- 자해의 경험에 대한 자세한 기술
- 자해 토크 & 방송:
- "지금 피흘리는 거 보여, 송글송글 맺혔어..."
- "난 이제 수건이 거의 젖었어, 곧 소리지를지도 몰라, 아니면 니가 119에 전화해줄래"
- <자해 매뉴얼>
- 망해가는 시대에 서로 자신을 죽이기 경쟁하는 문화
- 나도 죽어가고, 너도 죽어가고,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다..... 자해 클럽
- → 귀찮음과 죽어감, 의미없음 → 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사이트 다마키, <폐인과 동인녀의 정신분석>중에서



사례3 : 불행-외상형 "세상이 지옥이다"

- 과거 유형의 확장 - 부부불화, 가정폭력의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 고달픈 애환으로 가득차고 외롭고 우울하며 재미없는 일상
- 이런 불행에 대한 민감성, 정신적 외상에 대한 고통에 대한 예민화, 연민과 동일시
- "아무래도 나는 나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문화텍스트 : 여중생 a, 우울하고 슬픈데 위로가 되는 중3가
정폭력, 알코올 가정 아이의 이야기. 아이들 정서



사례4: 목격-방임형
“부모가 그랬듯이 나도 그러고 싶네”

- ❑ 새로운 유형 : 지난 5년간만해도 아이들의 부모가 적어도 1만명 이상 자살했다
- ❑ 이 중 목격자인 아이들이 적어도 5천명 이상이고 이 아이들이 자살을 보고 컸다
- ❑ 유서 : “엄마가 그랬을 때, 그 느낌을 이제야 알게되었다. 나도 더 이상은 힘들고, 엄마 따라 간다”
- ❑ 남자, 고등학생
- ❑ 학교 중퇴 이후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남자에게 외상을 당하고, 복합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아버지와 크게 싸운 후, 가출하고 쉼터에 머무른 여관에서 유서 남기고 자살.
- ❑ 부모 자살 후 정서적 어려움 갖고 지내는 아이들이 상당수 인데, 여러 이유로 개입되지 않고 있음



사례 5 : 부담회피형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부모의 소원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 과거 유형의 확장 : 자식의 수가 줄면서,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아이들이 늘어남
- 공부, 더 잘해봐 증후군
-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
-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지막 무대, 수능이라는 공연에 올라갈 수 없었다”
- “무능이라는 실망보다 미완이라는 기대가 남는 것이 부모에게 덜 상처가 될 것이다”
- 특정한 수행에 대한 파국적 인식, 처벌적 기대, 불안에 시달리는 아이들



자해의 하위문화

- 자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힘
- 여성의 공격성 표출에 대한 문화로 논의됨
- 십대 문화에서 만화(동인녀), 웹툰, 혹은 영화를 통해 전파되고 공유하면서 하나의 하위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 가까운 일본에서 ‘리스트 컷’을 다룬 다양한 문화적 현상이 10여년전에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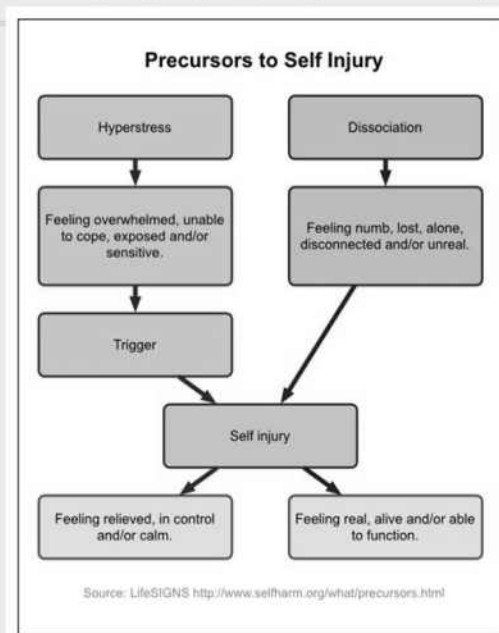
손목 긋기 증후군

- 대부분 여성, 비자살의도
- 통제집단과 비교 연구 결과
- 아동기 신체 질병 병력
- 수술병력 포함
- 불규칙한 월경
- 면접 결과
- 특별한 감정을 다루고자 하는 의도
- 이인화, 해리상태 추구
- 자신을 재통합하기 위해 긋는다
- 손목을 긋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 흘리고 싶은 피의 양과 통증, 상처의 깊이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다
- 성적인갈등, 무력감에 대한 반응, 공격성에 대한 반응

- Article
- Wrist-Cutting Syndrome: The Meaning of a Gesture
- RICHARD J. ROSENTHAL, CARL RINZLER, RITA WALLSH, and EDMUND KLAUSNER



자해이론의 요인과 경로





자해의 기능

- 다른 고통의 치환 및 제거 : 다른 심리적 고통을 치환하고 제거하는 기능
- 다른 상태로 전환 욕구 : 해리 상태, 어떤 상황에서의 탈출
- 정신적 각성 : 어떤 상태에서 본인을 깨어나게 하는 기능
- 자기처벌 : 자기처벌적 행위, 자신의 직접적 처벌, 자기 내에 있는 가해자적 요소를 처벌
- 작은 죽음 - 새로 태어나고 싶은 자해행위
- 여성의 공격성 학습의 내향화 - 남성에 비해 억압된 공격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신을 향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성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남성은 신체적 폭력성으로 표현)
- 반복되는 자기정화, 자기치유 (Reset)의 시도 - 그러나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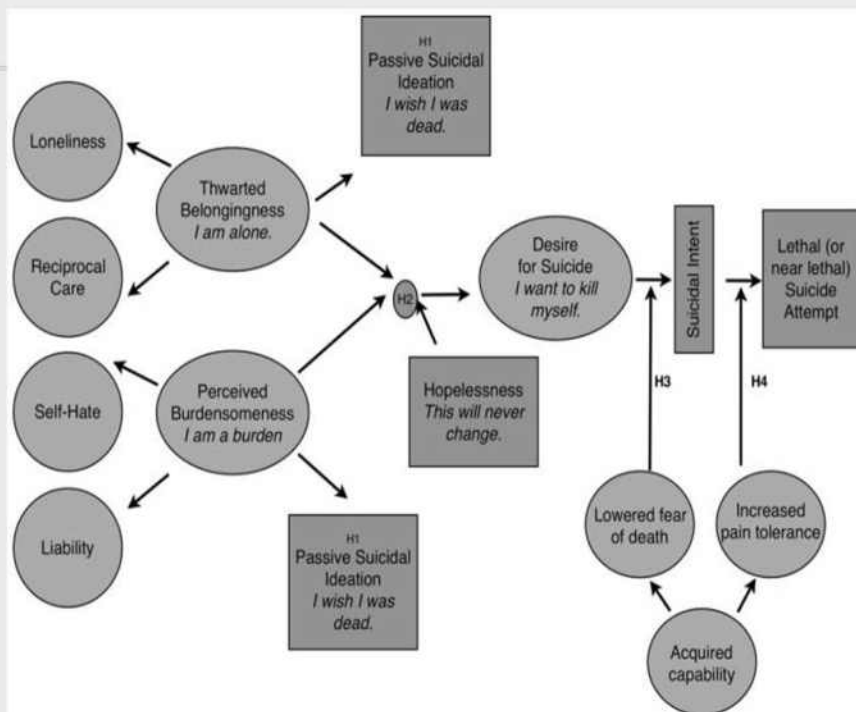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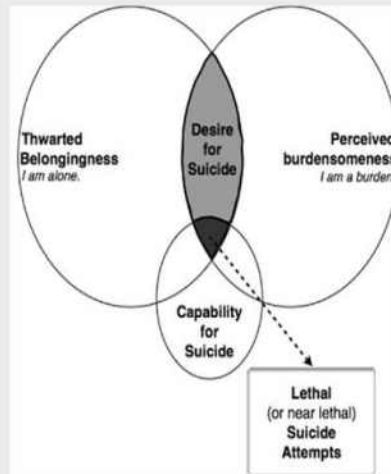
청소년 자살의 이해

- 시대적 인식과 문화적 분위기
- 대인관계적 요소의 증가
- 문화적 감수성, 지각 그리고 다른 정서적 발달에 따른 표출
- 이해의 어려움, 상담의 실패, 문화적으로 충족
- 공감적 이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대인관계에서의 자살요인

□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 Kimberly A. Van Orden, Tracy K. Witte, Kelly C. Cukrowicz, Scott Braithwaite, Edward A. Selby, and Thomas E. Joiner, Jr. (2010) Psychol. Review





세대 차이 - 생에 대한 이해와 조건의 차이

구세대

- ❑ 강함애의 추구
- ❑ 위로 올라가는 삶
- ❑ 문제의 부정
- ❑ 거칠은 세상을 이겨나감
- ❑ 위로 : 힘내! 파이팅!
- ❑ 오늘은 내일을 위해 존재
- ❑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무조건 하기
- ❑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신세대

- ❑ 약함과의 연대
- ❑ 아래로 내려가는 삶
- ❑ 문제의 인정
- ❑ 거칠은 세상에 안나섬
- ❑ 위로 : 힘쓰지마, 쉬어!
- ❑ 오늘은 오늘을 위해 존재
- ❑ 의미있으면 하기
- ❑ 1인분 인생, 나하나도 힘들어

감사합니다.



이해가 필요하다





교사의 아침 5분
교사의 종례 후 5분

아이들과의 아침 5분
아이들과의 종례 후 5분



감사합니다.

2 청춘의 인문학

한양대학교 교수 유 성 호



청춘의 인문학

교통사고와 병원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여기 와 있죠?

청춘의 인문학

인문학은 해석학

상대성 : 어떻게 생각하면, ---
절대성 : 어떻게 생각해도, ---

문학 - 개별성과 추상성의 통합.
역사 - 개별성, 해석된 사건.
철학 - 추상성, 진리란 무엇인가?



청춘의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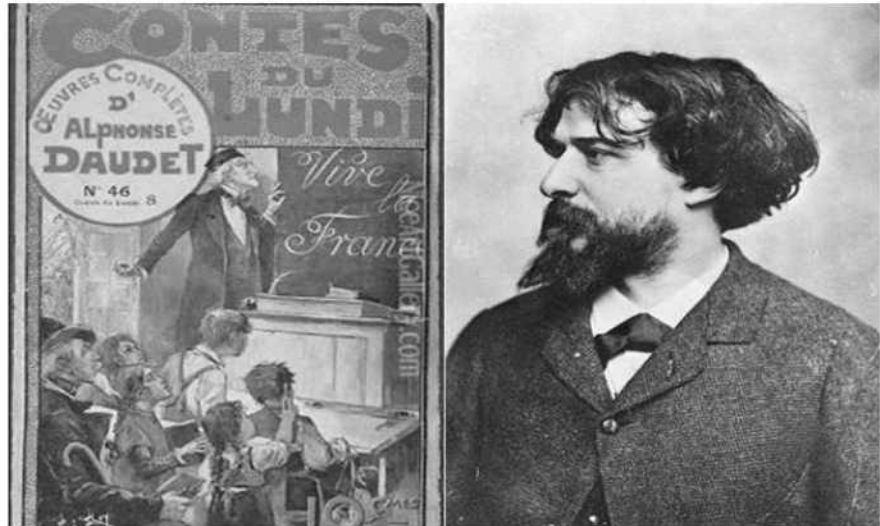
문학 작품

뉴튼은 자신을 일러 '거인의 무동을 탄 난쟁이'라 했습니다.

이때 '거인'이란 인류가 남긴
위대한 지적 유산, 곧 '책'을 가리킵니다.

청춘의 인문학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청춘의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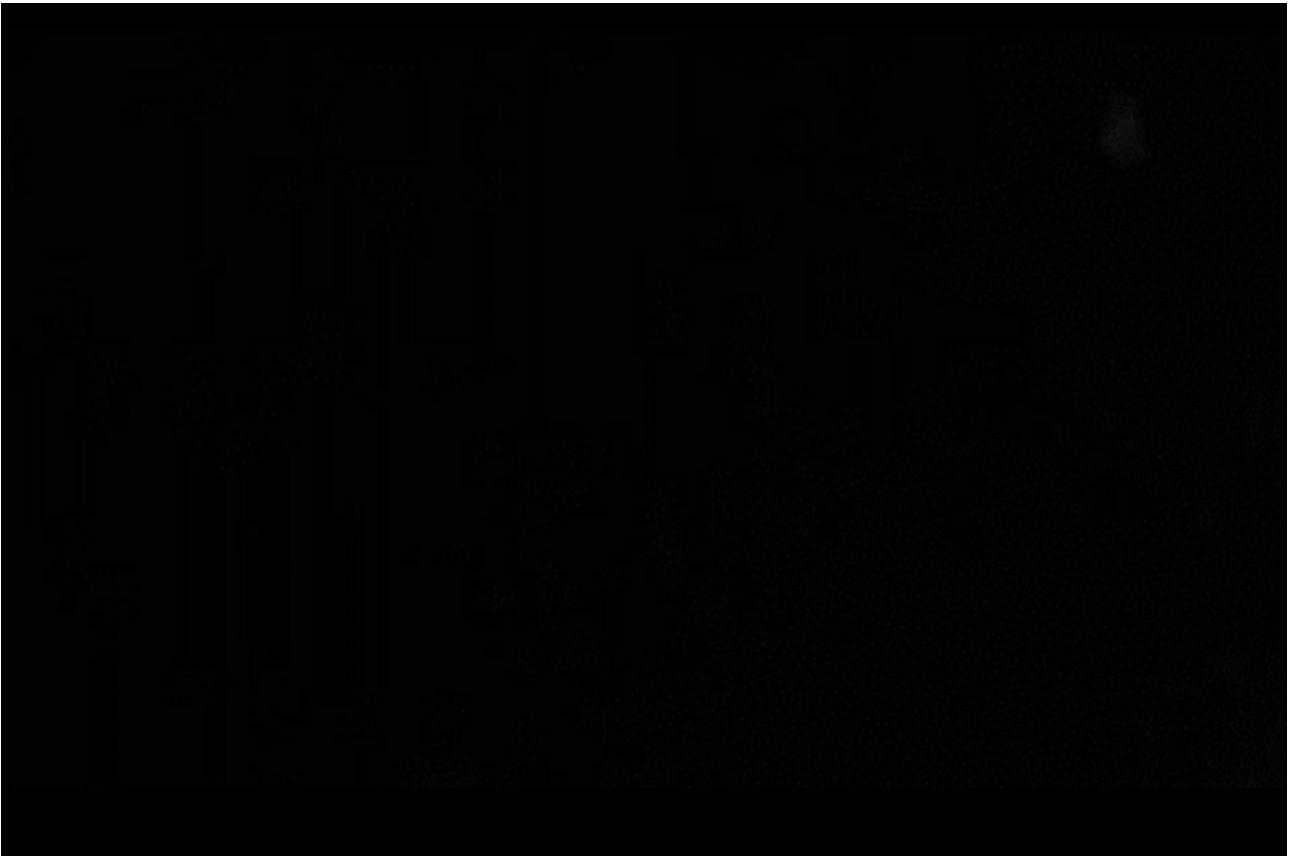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청춘의 인문학

인생이란 남의 일처럼 여겨지던 일들이
하나하나 자기 일이 되어가는 과정.

사랑이란,
죽음이란,

컵 이야기
: 존재 or 부재 / 흔적



청춘의 인문학



청춘의 인문학

돌아온 것,
욕망과 그리움,



청춘의 인문학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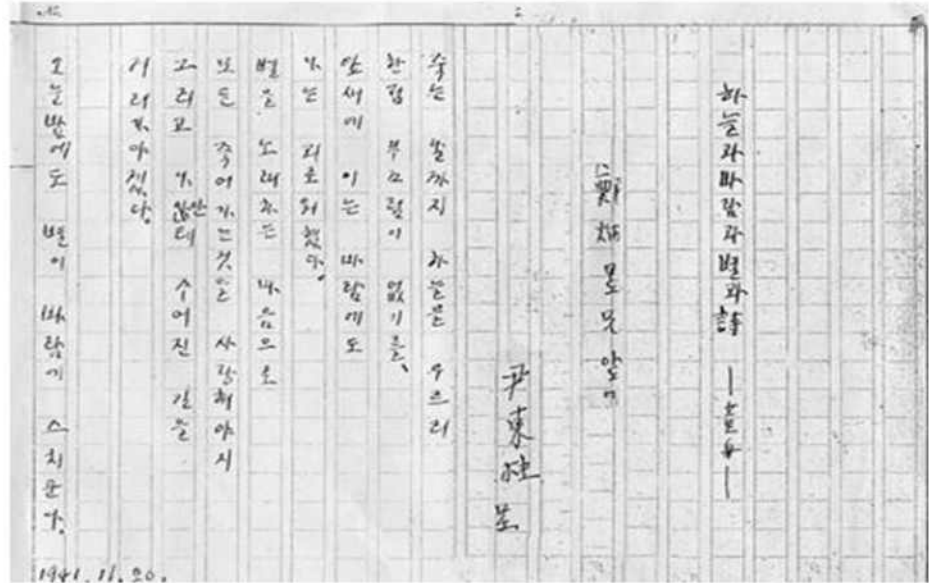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전문



청춘의 인문학

「서시」 육필 원고



청춘의 인문학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
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
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
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
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
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전문

청춘의 인문학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따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 윤동주 「별 헤는 밤」 중에서

청춘의 인문학

윤동주 묘(용정 동산교회 묘지)



청춘의 인문학

윤동주 생가(용정 명동촌)



청춘의 인문학



연세대학교 윤동주 시비



중국 용정의 윤동주 시비



일본 도시샤대학
윤동주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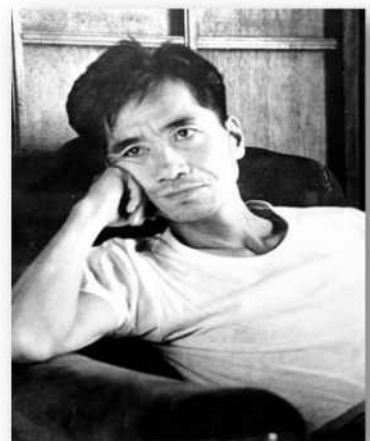
형준의 인문학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 김수영 「사랑」 전문



청춘의 인문학



김광석 <서른 즈음에>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산울림 <청춘>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청춘의 인문학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정현중 「방문객」 전문



청춘의 인문학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전문



청춘의 인문학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

- 서정주 「푸르른 날」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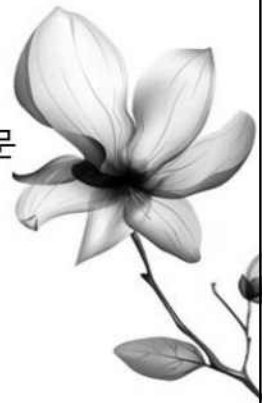




청춘의 인문학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 푸쉬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전문



감사합니다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인식개선



3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인식개선

서울대학교 교수 최혜영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인식개선

2017년 5월 23일, 24일

최혜영(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연구조교수)

목차

1.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의 중요성

2. 학부모 학교참여 실태

2015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2015).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3. 학부모회 조례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학부모회 역할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 (2013).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4.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교원 인식

학부모-학교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방안 연구 (2012).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5.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 (2012).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2013).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01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의 중요성

-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학교운영에 대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강이 외, 2012)
- 학교와 가정은 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위해 서로 책임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 아동에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음(Epstein, 1987)

01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의 중요성

-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학교와 가족 간의 파트너십을 의미하며(Epstein, 2011),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지속해서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Yetunde, John-Akinola & Saoirse, 2014)
-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otton & Wikelund, 1989; Finn, 1998), 자녀의 올바른 행동과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해 중요함

01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의 중요성

-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학업성취, 학교출석률,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Dauber & Epstein, 1991; Eccles & Harold, 1996; Henderson, 1987), 아동의 사회적 행동,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Fan & Chen, 2001)
- 학부모는 자신들의 학교참여가 학교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학교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함 (Kaczan, Rycielski, & Wasilewska, 2014)

01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의 중요성

-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주동범, 1998; 이세용, 1998)
- 어머니의 학교참여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김영희, 2002)
- 학교참여를 많이 한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서현석, 최인숙, 2012)

01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의 중요성

-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는 교사들의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질적 향상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것에 영향을 주어 교수활동 향상에 기여함(박미경, 2002; 임연기, 2002)
- 교사의 교수활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직결되는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교수활동 수준과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인지적·정의적 영역에서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됨(신명희 외, 2014)

01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의 중요성

-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 및 학교장이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학부모를 개입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부모의 전문성을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2017년 학부모정책 기본계획)
- *자유학기제 확산, 진로직업교육 강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등

01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의 중요성

• 2017년 학부모정책 기본계획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교육기부 등의 활동계획을 공모·선정하여 예산 지원(시·도별 차등지원)

-교육부는 운영 지침과 예산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학교참여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활동계획을 공모·선정한 후 우수 학부모회 지원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이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자발적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응투자 등을 권장

02

1)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

학교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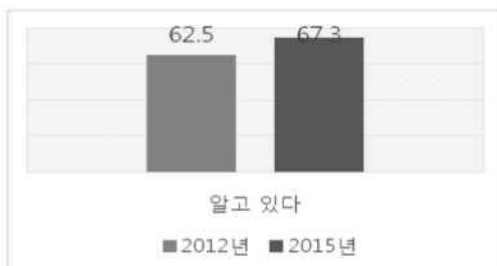
2015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가 학교운영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는 비율은 2012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30% 이상이 모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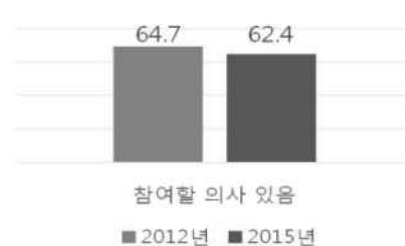
- 아버지 집단은 44.4%만 학교운영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을 인식함

• 학교운영의 주체로서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는 2012년도와 유사함

학교운영 주체 인식 (%)



학교교육 개선활동 참여의사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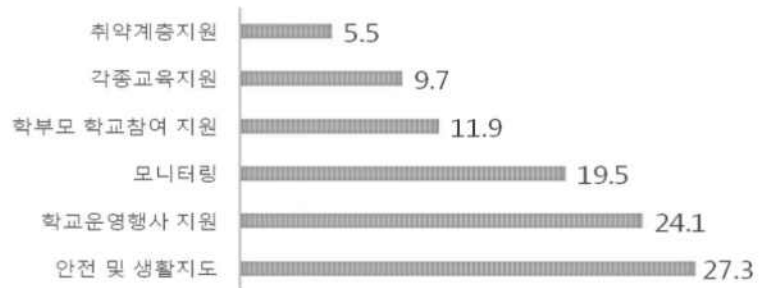
2) 교육기부·자원봉사

학교참여 실태

2015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평균 참여횟수: 1.38회
- 응답자의 48.6%는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었음.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참여한 비율 (%)



아버지 집단

- 평균 참여횟수가 0.48회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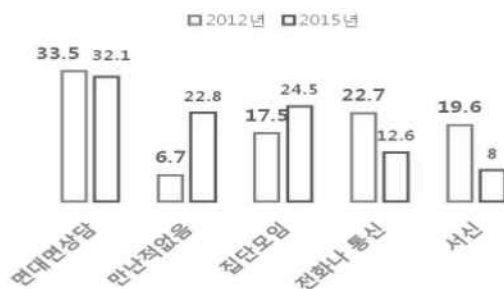
02

3) 학교와의 소통

학교참여 실태

2015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교사와의 접촉 방법(지난 일년간) 단위: %



- 면대면상담 횟수:

없음(33.6%) > 1회(33.5%) > 2회(22.8%)

- 면대면 상담 시간:

11-20분 사이가 56.7%로 가장 높음.

- 면대면 상담 시기:

평일 일과 후(61.8%) > 평일 일과 중(37.2%) > 평일 일과 전(0.7%)

아버지 집단

- 교사와의 접촉 방법:

- 만난 적 없음(69.0%)
- 집단모임(10.4%)
- 면대면상담(9.4%)

- 면대면상담:

- 81.4%는 면대면상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면대면상담을 한 경우 시간은 11-20분 사이가 41.9%로 가장 많음.

02

4) 학부모교육

학교참여 실태

2015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실제 학부모교육 참여 경험 (%)



학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



- 학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2012년 조사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정도는 유사한 수준임.

아버지 집단

- 학부모교육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5.8%이며, 그 중 51.7%가 1회 수강함.
- 학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시간이 없어서 (47.8%) > 시간이 맞지 않아서(27.8%) > 교육정보가 없어서(12.5%)

02

5) 학부모회 활동

학교참여 실태

2015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회 참여 실태:

참여 24.3% (2015년) < 28.5%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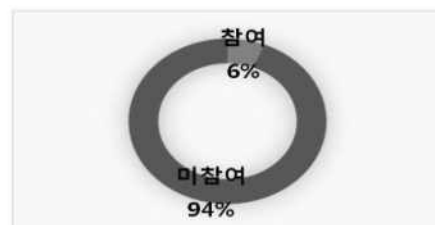
학부모회 참여 이유 (%)



• 학부모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시간이 없음(40.8%) > 시간이 맞지 않음(23.4%) > 학부모회에 관심 없음(7.9%) > 학교 기여에 대한 부담감(7.4%)

아버지 집단



• 학부모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시간이 없음(52.3%) > 시간이 맞지 않음(21.3%) > 학부모회에 관심 없음(5.7%) >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4.7%)

02

시사점

학교참여 실태

2015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교급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학교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음
- 아버지 학교참여 실태는 전반적으로 낮음. 아버지의 학교참여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낮 시간대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있어 보임
- 30%의 미참여 학부모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과 학부모회 활동 중심의 학교참여를 넘어서는 방안 모색 필요함. 학교급간, 지역간, 단위학교간 격차 해소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학부모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 확장,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체계 개선, 학부모 학교참여 방법의 다양화와 콘텐츠 내실화 필요

03

학부모회 조례

• 학부모회 조례의 필요성

-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교육주체가 소통·공감하는 학교문화 실현
-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03

학부모회 조례

• 인천시 학부모회 조례 주요 내용(2017.3.1.시행)

- 학부모회 설치, 명칭, 기능과 회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임원 등의 구성, 임원의 임기·직무·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
- 학부모회의 조직, 총회, 총회 의결사항 관한 사항 규정
- 대위원회 구성, 대위원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
-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 규정
-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 규정
- 재정지원, 위임 규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03

학부모회 조례

• 학부모회 활동 내용

-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
으로 정하는 사업

03

학부모회 조례

학부모회 역할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회 법제화 연구의 필요성

- 학부모회 법제화는 교사나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학부모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일부 학부모회 임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학교 측에도 행정적 업무 등 부담을 줄 수 있음
- 정부의 학부모교육참여 활성화로 학부모회 구성율이 96%에 이르나 학부모회가 법적기구화 되지 않아서 공식적인 지원 근거가 미약함

03

학부모회 조례

학부모회 역할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회 역할

- 학부모 참여는 교사로서의 역할, 학교 활동의 참여자로서의 역할, 학습자로서의 역할, 학교에 관한 정보 소비자로서의 역할(Hamby, 1992)
- 학부모회는 학교교육의 협력자로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학교교육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 수행. 지역사회와의 결속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학교 발전에 적극적 참여(김평하, 1991)

03

학부모회 조례

학부모회 역할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회 역할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의견 전달 통로 기능.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
다양한 봉사활동을 제안·조직하는 역할(류재광, 1999)

-2010년 OECD에서 조사한 학부모회의 역할 :

- 주요 정책결정에서 학교(정부)와 협의하는 공식적 역할
- 학교(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역할
-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부모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03

학부모회 조례

학부모회 역할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회 법제화의 장점

-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 함으로써 정부와 학교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공식적인 학부모단체가 필요하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함

03

학부모회 조례

학부모회 역할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회 법제화의 단점

- 실질적인 전체 학부모의 참여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음
- 맞벌이 취업모나 한부모가정의 취업모 등 현실적으로 학부모회 참석이나 적극적 활동이 어려운 계층의 문제가 예상됨
- 학부모와 교사에게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 학부모회 예산 관련 교육청에 재정적 부담 작용

04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교원 인식

학부모-학교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연구목적 및 내용

-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학부모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들에게 학부모와의 효율적 소통 역량 강화 필요. 학부모와 교사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와 학교 간 협력관계 강화
- 학부모-학교(교원)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사연수 관련 초·중·고 교사 200명 응답(학교장 포함)

04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교원 인식

학부모-학교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주요 결과

•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4점 만점에 평균 3.6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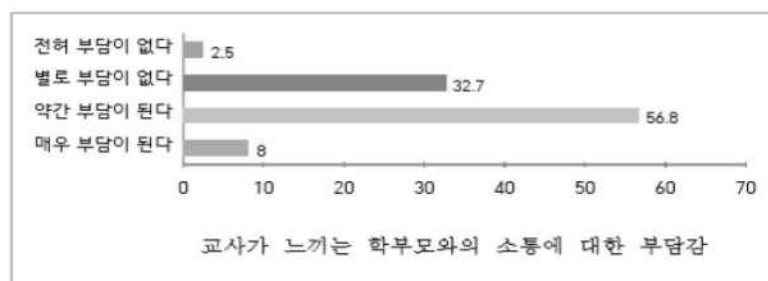
-교사의 90%이상이 자신이 학부모와 소통을 잘 할 수 있다(의사소통효능감)고 생각하고 있었음. 20~30대 교사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의사소통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04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교원 인식

학부모-학교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학부모와의 의사소통효능감의 교사직위별 차이에서 학교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4점 만점에 3.67점)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해서 교사의 64.8%가 부담감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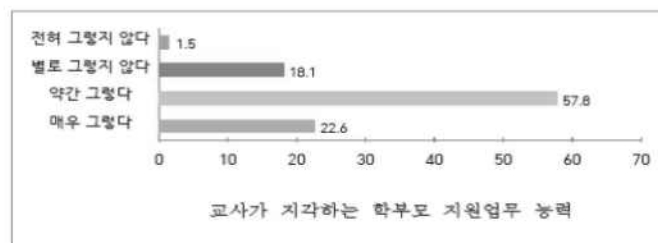
04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교원 인식

학부모-학교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지원 업무 능력

-학교 설명회, 상담,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지원업무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사의 57.8%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2.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



04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교원 인식

학부모-학교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지원 업무 능력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연령이 낮은 교사들보다 연령이 높은 교사들이 자신감이 높았음

-학부모지원업무 능력의 교사직위별 차이에서 학교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4점 만점에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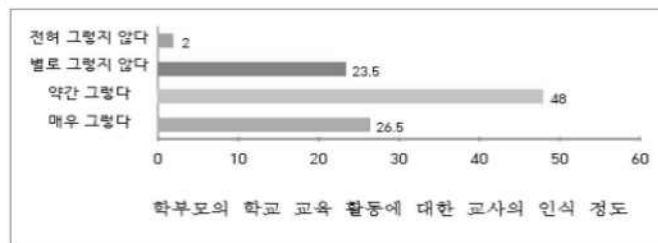
04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교원 인식

학부모-학교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인식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99점임('매우 잘 알고 있다'는 전체의 26.5%)



04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교원 인식

학부모-학교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인식

-교사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20~30세 교사가 가장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짐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활동 인식 교사직위별 차이에서 학교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4점 만점에 4점)



05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활성화

- 자연스러운 소통 가능한 학부모친화적 문화 조성
- 학부모가 편안하게 학교를 방문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학부모 전용 공간 설치
- 다양한 소통 매체 활용한 채널 다각화
- 정보제공관련 의사결정과정에 학부모 참여 활성화
-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의사소통기술 연수,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

05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수준 점검 지표

-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건과 준비 상태 확인, 부족한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
- 영역1)학부모에게 친화적인 소통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가? 영역2) 학부모와 학교의 양방향 소통이 진행되는가? 영역3)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개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점검 항목 별 하-미흡, 중-보통, 상-충족 등 3단계로 자체 평가하여 총점 산출 후 미비한 항목 점검하여 보완

05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36개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1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평가]

• 학부모 교육기부 성공요인

- 학부모-학교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됨
- 교사와 학부모회 임원의 유기적 역할분담으로 학부모 교육기부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
- 학부모 참여동기를 강화하는 학부모 교육기부 인센티브 제공이 참여 확산을 위한 효과적이었음
- 학교장의 학부모 학교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05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 교육기부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학부모의 선입견이나 불신, 교육기부자의 자질문제
- 학교 주도적 교육기부활동이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시킴
- 담당교사-담임교사-학부모회 임원-일반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방안 마련 및 다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학부모 교육기부에 대한 교원의 긍정적 인식 필요

05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 교육 성공요인

- 학부모교육에 대한 학부모 요구조사와 지속적 홍보·안내
- 학교장이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됨
- 담임교사가 학부모교육에 대한 홍보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를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조직 분위기 조성

05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 교육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학부모교육의 주제가 자녀 학습지원에 집중되는 경향
- 단위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의 주제 및 내용 선정, 강사섭외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일회성 학부모교육을 지양하고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부모교육 계획 필요
- 학부모 업무 담당 교사의 역할에 대한 지원 필요

05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학교 소통 성공요인

- 사업 이전 학부모 요구 조사, 사업 이후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소통의 내용과 방식 조정
-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학부모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장 및 전체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가장 큰 기여를 함

05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학부모-학교 소통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학부모, 교사 모두 상담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상담 경험 적은 교사일수록 학부모의 상담만족도가 떨어짐
- 학교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맞벌이가정, 소외계층 가정의 학부모는 학교 상담 참여가 어려움
- 교원 대상 학부모 상담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교사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
- 학부모 대상 상담 사전 이해, 상담 수칙 등 상담 교육 필요

05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 학부모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가 먼저 나서서 학부모들을 환영하는 자세를 갖추고 학부모와 원만히 소통할 수 있는 교사의 기본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연결됨
- 학부모와 협력하는 교사들의 경험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원의 신뢰를 구축하고 학부모 학교교육참여를 격려함

감사합니다

❖ 대안교육 운영 사례

- 늘 품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 대안학급 사례발표
- 자연 평화 상생의 산마을 학생자치문화
-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정형 위(Wee)센터
사랑나무
- 2017 한오름학교



4 늘 품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인천청천초등학교장 최 미 숙

대안교실 운영사례

실력과 바른품성으로
꿈을 키우는 청천교육



늘 품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인천청천초등학교 교장 최미숙

학교현황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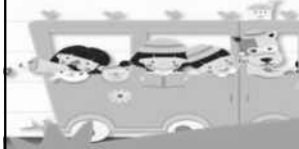
- 1971.3.1 개교
- 19(3)개 학급
- 교원 총 30명
- 학생 수 총 409명

교육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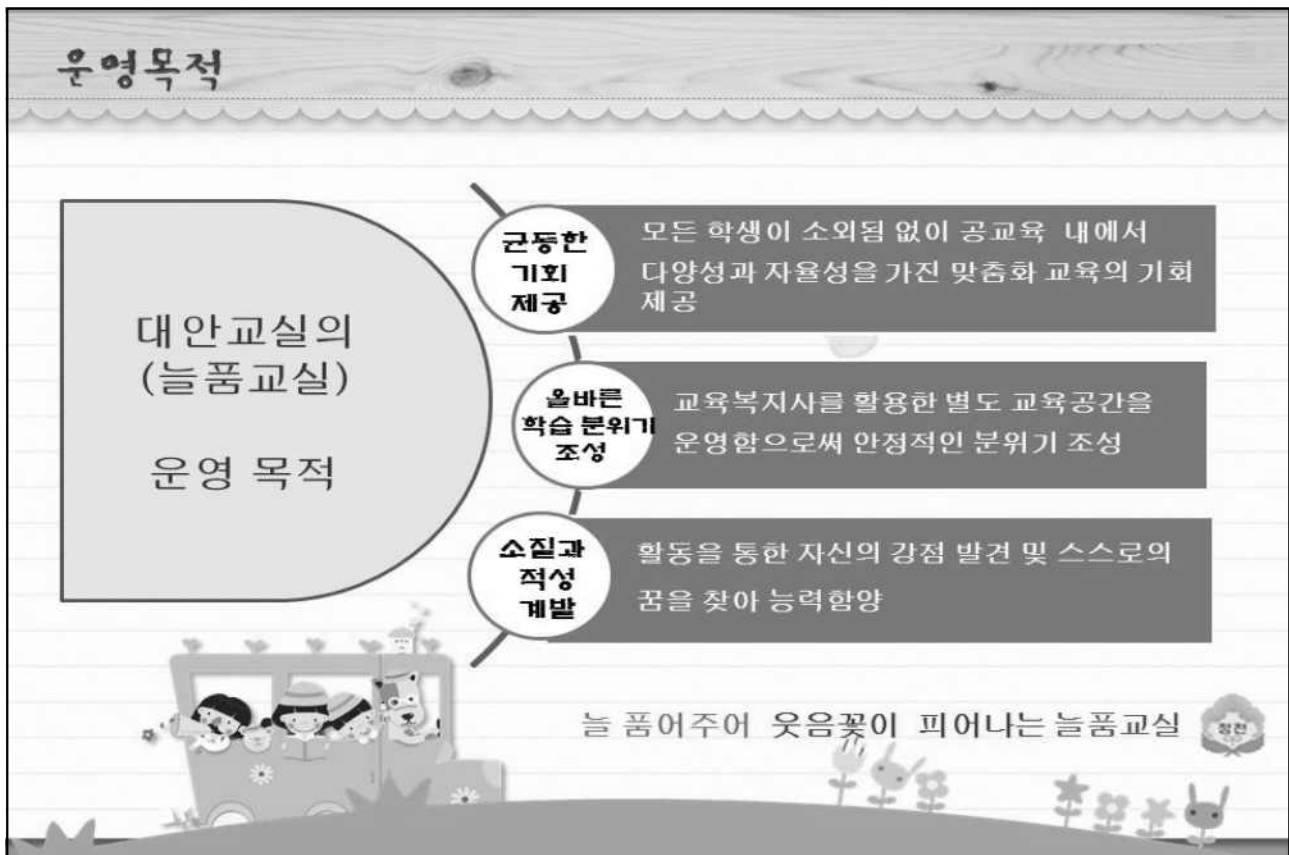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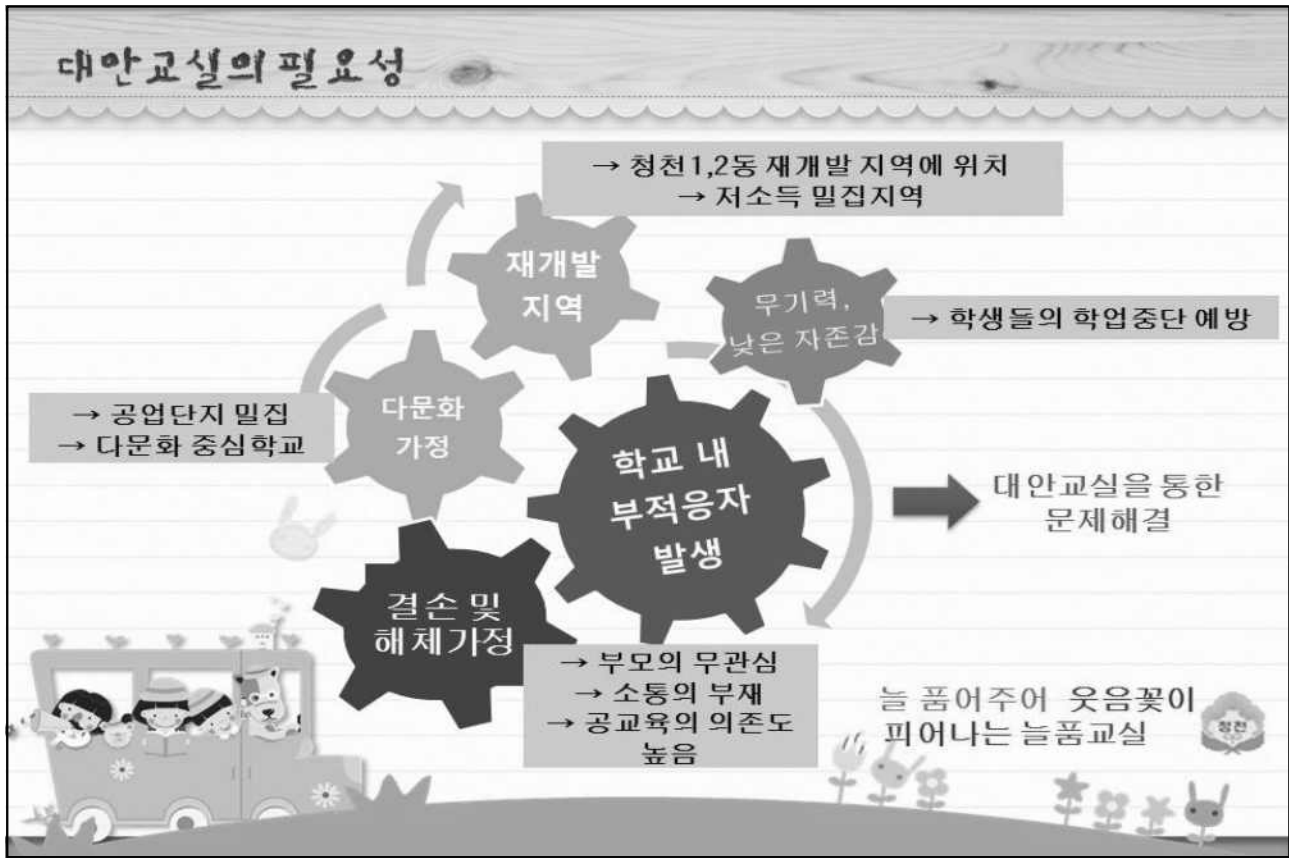
- 창의
- 인성
- 건강
- 예절
- 재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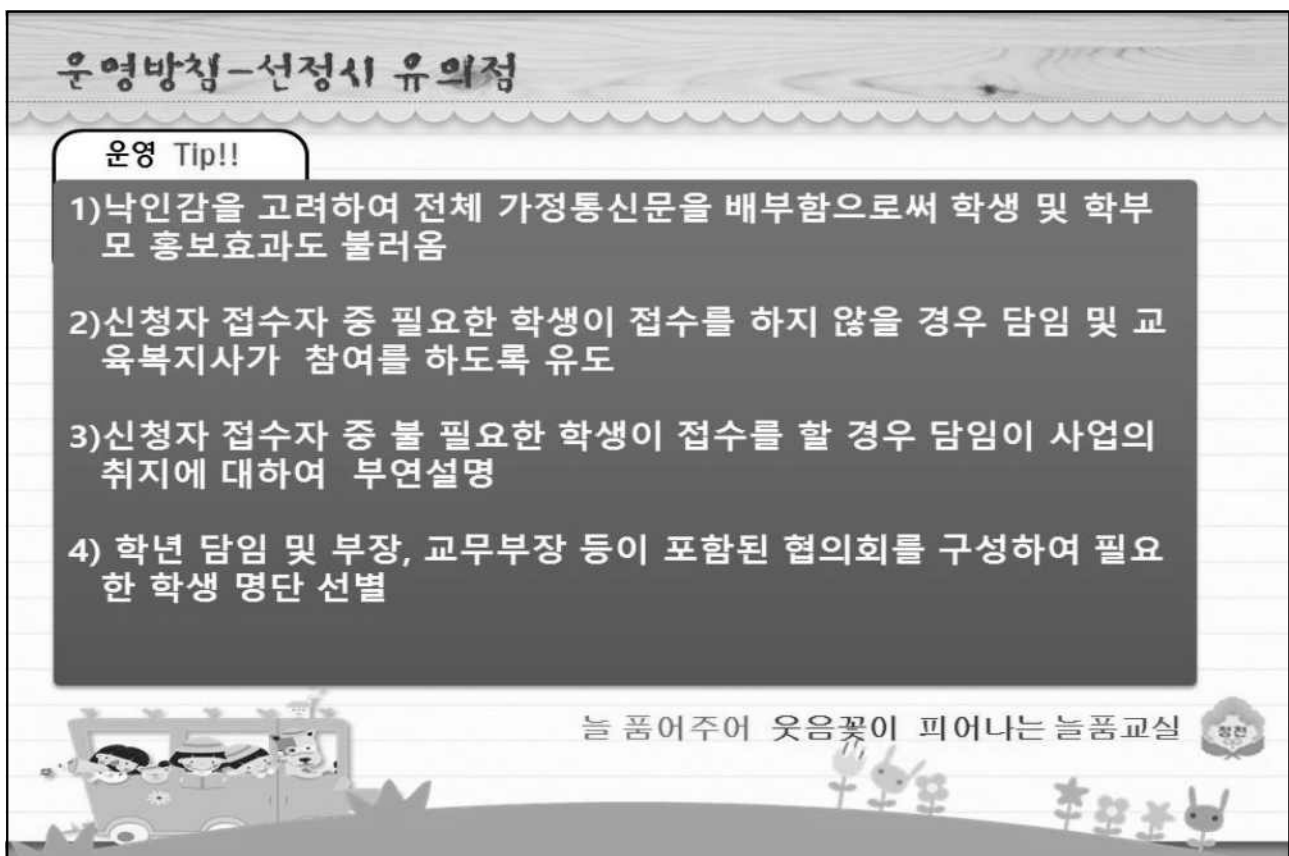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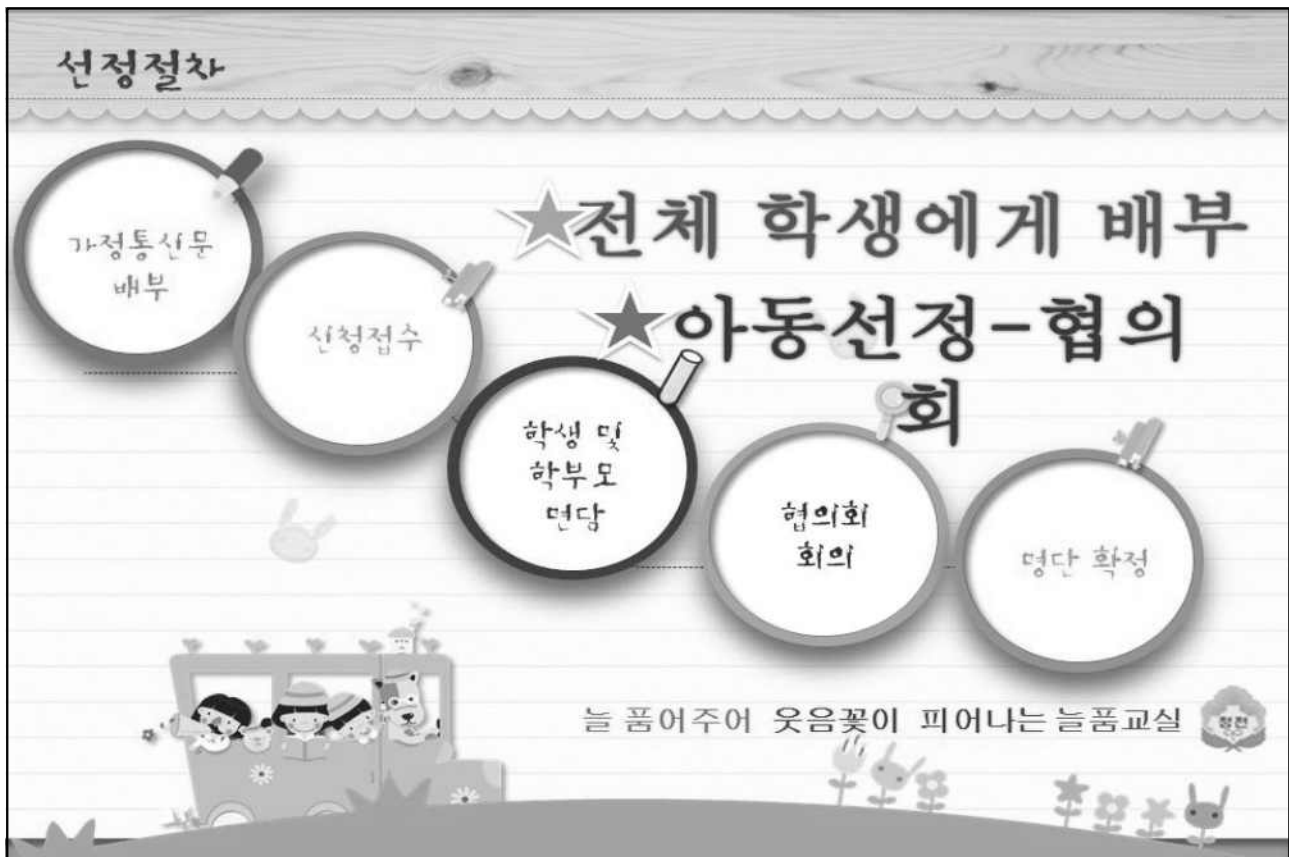
주요 사업

- 자율학교 운영
(전국 100대 우수학교 선정)
- 다문화중심학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음악교육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운영방법

기수제 운영

총 3기수로 운영
1기-1,2학년 2기-5,6학년 3기-3,4학년
* 2기수는 여름방학 후 고학년이 헤이해집을 반영함

요일제 운영

화, 금(또는 월, 금) 2, 3교시 운영 총 12회기 진행
* 정규과정을 대체한다는 부담감으로 담임,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횟수

교육 복지 사업 연계

내적 문제 성향이 큰 아동의 경우 교육복지사업 연계로
개별상담진행

선도위원회

선도 위원회에서 문제된 학생은 대안교실 참여 권고

협의회 운영

대상자 선별, 대상자 특성 공유, 대상자 변화도 공유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놀품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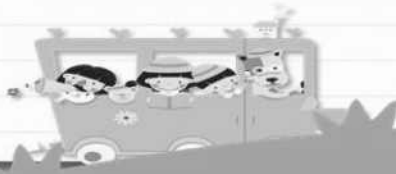
운영현황

구 분	현 황
운영 형태	· 부분운영제 (요일선택제와 기수제를 함께 병행)
운영 기간	· 준비기간 : 3, 4월 · 프로그램 운영 : 6월 ~ 12월 (2학기 집중 활동)
대상 학생	· 1~2학년: 7명· 3~4학년: 6명· 5~6학년: 5명 (총 인원 : 18명)
학생 특성	· 무기력, 학업능력저하, 정서행동특성 검사 고위험군, 학교부적응 *1~2학년 대상자 특징 - 주의산만, 불안, ADHD성향 3~4학년 대상자 특징 - 대인관계의 어려움, 소통방법의 미숙 5~6학년 대상자 특징 - 담임과의 불화, 반항적, 사춘기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놀품교실

운영현황

구 분	현 황
운영 공간	· 교내 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 복지실
지도인력 구성	· 총괄 관리 : 안전생활부장 · 계획 및 예산 : 교육복지사 · 대안교실 외부강사 (각 프로그램별) · 대안학급 운영에 따른 업무 지원 및 협조 : 담임 및 학년, 학생 부장
운영 시간표	· 매주 화, 금(또는 월, 금)요일 2~3교시 활동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프로그램내용

「늘품교실」 세부 프로그램

단계	회기	목표	세부활동	담당	장소
만남	1회기	<자기이해Ⅰ> MMPI 성격검사	오리엔테이션 및 성격유형검사 - MMPI로 보는 나의 성격유형과 다른 유형 이해하기	복지사	교육복지실
	2회기	<자기이해Ⅱ> 지문적성검사, 홀랜드 검사	나의강점알기 -지문적성 또는 홀랜드로 알아보는 나의 강점 및 적성 파악	복지사	교육복지실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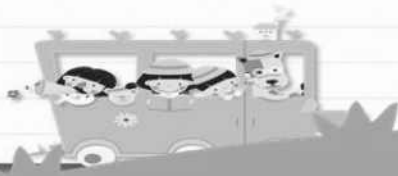
프로그램내용					
「늘품교실」 세부 프로그램					
단계	회기	목표	세부활동	담당	장소
활동	3,5회기	<마음수련>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마음수련	캘리그래피 활동 -정적 활동을 통한 마음의 평온함 찾기 -작품완성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외부강사	교육복지실
	4,6회기	<생명존중실천> 원예와 텃밭을 활용한 생명의 소중함 알기	원예활동 -동적 활동을 통한 내재된 욕구 해소 -원예활동을 통한 자아성찰과 생명존중 알기	외부강사	교육복지실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프로그램내용					
「늘품교실」 세부 프로그램					
단계	회기	목표	세부활동	담당	장소
활동	7,8회기	<푸드아트치료> 식재료를 활용한 자아탐색	푸드아트치료 -식재료 놀이 활동과정을 통한 창의력발달, 자신감향상, 자아탐색 표현활동	외부강사	교육복지실
	9,10,11회기	<통합놀이치료> 다양한 놀이 및 미술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통합놀이치료 -미술, 놀이, 독서 등을 활용한 정서적 치료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결방법 알기(감정조절)	외부강사	교육복지실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프로그램내용

「늘품교실」 세부 프로그램

단계	회기	목표	세부활동	담당	장소
마무리	12회기	<변화된 나 맞이하기>	변화된 나 표현 -변화된 내 마음 표현하기 -그룹활동을 하면서 느낀점 나누고 함께하기	복지사	교육복지실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진]

자기이해 - 성격검사 및 적성검사



결과물에 의미를 두기보다
자신의 몰랐던 강점 찾아
자존감 높여주기!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진)

마음수련 - 캘리그래피



집중력을 높이고
좋은 말귀 써가며
마음의 평온함 찾기!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놀품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진)

생명존중실천 -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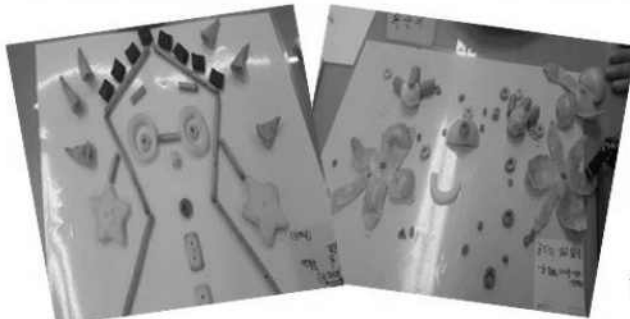
생명을 키우고 가꾸며
자신의 소중함 알기!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놀품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진]

푸드아트치료



식재료 활동과정을 통해
자아탐색과 창의력 발달!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놀품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진]

통합놀이치료



미술, 놀이, 게임 등을 활용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찾기!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놀품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진)

변화된 나 맞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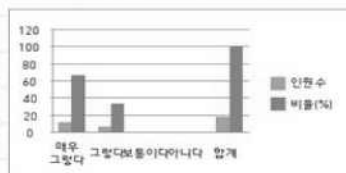


기쁜 나, 함께하는 능력
줄어든 화, 재미!
변화된 나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놀품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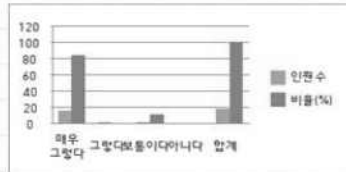


운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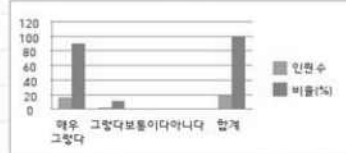
놀품교실에 참여하여 자신감이 생겼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 100%



놀품교실에 참여하여 친구들과 화합되는 시간이 되었다.

매우그렇다 : 83%



놀품교실에 참여하여 학교 오는 것이 좋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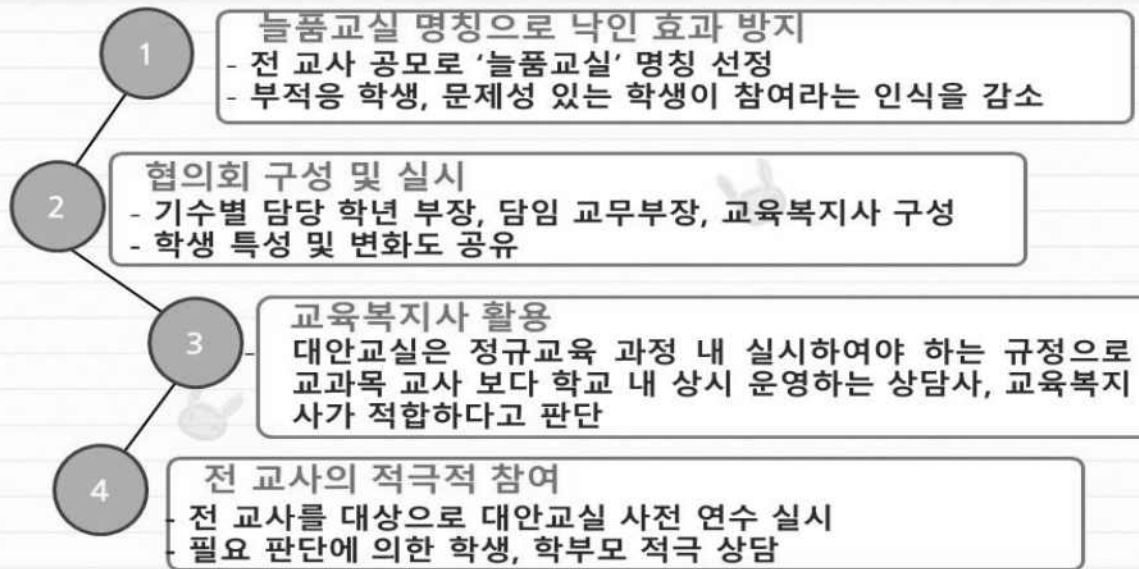
매우그렇다 : 90%

1~6학년 중 18명의 만족도 조사 참여

이 밖에 9개의 문항 (자신감, 화합, 스트레스 해소, 학교생활, 교사-학생 신뢰)의 긍정적 효과가 컸음을 나타냄.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놀품교실

극복과정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마지막 영상물

^^ 추억찾기 ^^

늘 품어주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늘품교실





실력과 바른품성으로
꿈을 키우는 청천교육



감사합니다!



인천청천초등학교
Incheon Cheongcheon Elementary School

5

대안학급 사례발표

송도고등학교 교장 오 성 삼

송도고등학교

대안학급 사례발표

발표자 오성삼



일반학교 속 대안학급 필요성



01

2015년 교육통계 자퇴 15,338명 / 질병 722, 가사 309, 부적응 5,397, 학업관련 2,794, 대인관계 136, 학교규칙 148, 기타 2,319

02

2011년 통계 하루 평균 209명의 학업중퇴자 발생
학업중퇴 학생 상당수가 인터넷 중독과 각종 범죄에 노출

03

2012년 경찰에 입건된 청소년 범죄자 8만9,776명 중
24%에 해당하는 21,143명 학교를 중퇴한 18세 미만의 청소년

04

학교 중퇴자의 범죄증가율 지난 5년간 2배로 증가

05

학교가 재미없고, 교과내용이 어려워 따라가지 못하고, 이미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는 경직된 학교생활에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 증가

06

자퇴생 상당 수가 교과성적 중하위권 학생 하루 평균 209명, 연간 7만 명 이상의 중도탈락 학생예방을 위해 별도의 해결방안 필요

07

선진국 학교들의 가장 큰 관심사 학생들의 중도탈락문제

대안학교의 기능



01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생활’ 적응력 제고

02

학업 부진 학생들에게
개념중심, 실생활 적용 중심의 쉬운 수업 기회 제공

03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진로 탐색기회 제공

04

해외 귀국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점진적 학교생활 적응의 기회 제공

05

체육 특기생들에게 교과진도의 단절현상 해결
(외국어 기초 회화 중심)

송도고등학교의 중점과정

- ☐ 과학중점(2011)
- ☐ 국제화 (2013)
- ☐ 사회과학(2014)
- ☐ 군사경찰(2014)
- ☐ 체육중점(2016)
- 대안학급(2015)



일반계고의 학생분포: 영재교육 vs. 대안교육



송도고 학생들의 스테나인 분포

학년인원	4%	7%	12%	17%	20%	17%	12%	7%	4%
344	14	24	41	58	69	58	41	24	14
437	18	31	52	74	87	74	52	31	18
390	16	27	47	66	78	66	47	27	16
1,171	47	82	140	199	234	199	140	82	47

영재교육 대상자 vs. 대안교육 대상자

학년	정원	영재교실	대안학급
1	344	14(38)	-14(?)
2	437	18(42)	-18(?)
3	390	16(0)	-16(?)

대안학급의 목적



1.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생활' 적응력 제고
2. 학업 부진 학생들에게
개념중심, 실생활 적용 중심의 쉬운 수업 기회 제공
3. 다양한 비 교과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진로 탐색기회 제공
4. 해외 귀국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점진적 학교생활 적응의 기회 제공
5. 체육 특기생들에게 교과진도의 단절현상 해결
(외국어 기초 회화 중심)

대안학급 추진 경과



1. 학교 내 대안교실 필요성 인식 (2014. 09)
2. 학부모 가정통신문, 학생 설명회를 통한 대안학급 대상자 선발, (2014. 12)
3. 학교 내 대안교실 신청서 교육청 제출 (2015. 02)
4. 대안교실 운영자 1차 협의회 (2015. 02)
5. 대안교실 학생, 교사(교장, 교감 포함) 간담회 (2015. 02)
6. 5권역 학교장 협의회에서 시안발표 및 자문요청 (2015. 03)
7. 대안교실 운영 예산을 학교 예산에서 선지원 (2015. 03)

대안학급의 준비



대안학급 교육내용



15년 세부 추진 계획

‘대안교육반’ 학생들의 경우는 각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게 됨.

- 자서전 쓰기 자신의 과거 생활을 되돌아 보며 미래 생활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주 금요일 1,2교시)
- 외국어 수업 영어, 일본어, 중국어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실용적 회화중심의 수업을 한다. (월 / 화 / 수 / 목 1~2시간 실시)
- 스포츠 활동 탁구, 농구, 당구, 수영, 볼링, 배드민턴, 스케이트를 실제로 배워보고 익히면서 여러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 (LTA / 자율활동)
- 진로탐색 활동 강연, 체험 활동, 예체능 활동, 여행, 등산, 둘레길 걷기 등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며 진로를 탐색한다. (목 / 금 5~7교시)
- 문화소양 활동 박물관, 과학관, 전시회, 공연 관람을 통하여 문화적 소양을 기른다.
(교과 시간)
- 교과연계 활동 정규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특색 있고 흥미로운 수업 활동을 전개함.
(교과 시간)

전문 외부강사 초빙 수업



자서전 쓰기 (24차시 48시간 수업)

강사 : 김연란 선생님 (Moa Cooperative)

자아발견, 자화성 그리기, 인생로드맵, 적성재능찾기, 과거 미래의 나, 자서전 출간

꿈꾸는 아이들 (6차시 12시간 수업)

강사 : 이현자 선생님 (놀이문화 연구소 '터')

생각감정표현, 카타르시스 경험, 생각나누기, 감정조절하기, 자아성찰하기

마음의 힘을 키우는 EQ향상 프로젝트 (6차시 12시간 수업)

강사 : 한지수 선생님 (Moa cooperative)

자아존중감, 감정원인, 스트레스표현, 열등감 극복하기, 나의 친구, 자기모습발견

당구 배우기 (8차시 24시간 수업)

강사 : 남웅재, 조형진 선생님 (인천시 당구협회)

당구의 기본예절, 자세와 타구법, 기본적 공의 원리, 분리각 이해, 끌어치기

대안학급 [2학년3반] 학생들



재미있고 신나는 교과 수업



과학수업 (실험 실습 위주의 흥미로운 수업 전개)



미술수업 (만다라 그리기, 부채, 가면, 노리개 만들기)

전문 외부강사 수업 모습들



한국민속촌 체험학습 (2015. 05. 01, 금)



김유정 문학촌 문학기행 (2015. 06. 09, 화)



독립기념관 체험학습 (2015. 10. 20, 화)



스포츠 활동을 통한 학교생활 즐거움 찾기



당구

교내 당구장 사용, 학교 당구 대회 우승

수영

동남 스포피아, V플러스 수영장, 4회 실시

볼링

동남 스포피아 볼링장, 체육교사 지도, 4회 실시

탁구

교내 탁구장 이용, LTA(점심시간) 시간 활용

농구

교내 농구장 사용, 대안교실 농구부 선수 도움

스키

겨울 방학 중 강습 예정

스포츠 활동 당구 배우기



스포츠활동: 수영 배우기



스포츠 활동: 볼링 배우기



스포츠 활동: 탁구, 농구 배우기



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목, 금 오후 3시간]



품아트 배우기 (03.19 /목)



소래습지 생태공원 (04.09 /목)



인천둘레길 8코스 (05.21 /목)



국립 생물자원관, 아라뱃길 (05.29 /금)

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목, 금 오후 3시간]



도원체육관 농구 관람 (06.11 / 목)



인하대학교 탐방 (09.18 / 금)



문학산 극기훈련장 (10.23 / 금)



인천대학교 탐방 (10.29 / 금)

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목, 금 오후 3시간]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10.30 / 금)



인천도호부 청사 (11.06 / 금)



대안교육 설명회 (11.19 / 목)



한 시간에 보는 영화속 인물학 전 (11.20 / 금)

비교과 체험활동 (영화 관람)



연평해전 (06.30/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07.09/목)



인사이드 아웃 (07.17/금)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 (11.26/목)

대안학급 학생들의 [자서전] 남기기





졸업식 행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Aim Higher]



대안학교 운영의 효과



01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생활’ 적응력 제고

02

학업 부진 학생들에게
개념중심, 실생활 적용 중심의 쉬운 수업 기회 제공

03

다양한 비 교과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진로 탐색기회 제공

04

해외 귀국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점진적 학교생활 적응의 기회 제공

05

체육 특기생들에게 교과진도의 단절현상 해결
(외국어 기초 회화 중심)

6 자연 평화 상생의 산마을 학생자치문화

산마을고등학교 교장 안 성 균
안전생활부장 한 정 수

교학상장(敎學相長)과 학생자치(學生自治)

교육의 3주체 가운데 중심이 학생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생자치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학생자치가 중요한 것은 학생을 교육의 객체로 보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개념이라 하겠다. 좁은 의미에서의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 개인이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습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집단활동으로서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치기구 및 조직을 구성하여 학습을 전개하거나 학급과 학교를 운영하는 일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나가는 활동전체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학생을 시민으로 보고 존중하며, 좀 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에서 학생은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판단 및 분석하고 결정하는 교육적 훈련기회를 갖지 못함에 따라 자기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이 미약해졌다. 게다가 입시교육체제는 경쟁, 약육강식, 우열성패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적 자치역량을 도모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조직 속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학교정책을 생산해낼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생이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으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학생은 학교공동체에서 자치와 참여를 실천해가는 활동을 통해 이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영국의 800여개에 달하는 협동조합학교들은 이의 좋은 롤모델이다.

그러나 한편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은 외발교육이요,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입각한 상호중심이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자란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은 이를 의미한다. 과연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생도 아니요, 교사도 아니요, 학부모도 아니다. 학교의 실체는 지향해야 할 가치에 입각한 교육철학이요, 3주체는 이를 따름으로써 학교의 주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빈곤한 교육이념은 결국 현실과 타협하여 끝없는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익히 겪어 왔다. 교사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학생이다. 학생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극 받고 도전받는 도정에서 그 시험을 통과한 교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교육철학에 대한 자

기반성과 애정에 기반한 학생과의 끝없는 밀당으로 형성된 신뢰관계라는 연단을 통해 교사는 성장하고 변화한다.

자연 평화 상생의 학생자치문화

산마을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 . 지혜와 배움을 나누는 사람'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달리 간략하게 표현하면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갈 '평화의 일꾼(Peace maker)'을 희망한다는 메시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와 공동체는 '사유하는 학교 . 땀 흘리는 학교 . 마음 나누는 학교'라는 교육철학을 공유한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민주적, 개방적 의사소통, 자율과 자치의 학교 문화,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 가치와 미래 지향의 진로 교육, 창의적, 개방적, 밀도 있는 수업, 지역과 세계를 생각하는 교육, 개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교육으로 구체화되어 교육과정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 개방적 의사소통, 자율과 자치의 학교 문화,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 가치와 미래 지향의 진로 교육, 밀도 있는 창의적 수업, 지역과 세계를 생각하는 교육, 개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원칙과 강조점이 설정되어 있다. 우리는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따르고 애쓸 뿐이다.

산마을은 국내에서는 그 예를 찾지 못할 교육적 시도를 감행한 바 있다.

첫째, 전면적인 생태적인 학교건축을 들 수 있다. 학교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교육철학을 구현한 교육공간으로서는 그 예를 찾기 힘든 독보적인 사례이다.

둘째,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질적 심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일반 학교에서는 대개의 경우 전례에 따라 학교관리자와 부장교사들이 교과 계수조정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산마을에서는 2013년 2학기부터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가 모여 단위별로 회의와 설문작업을 거쳐 그간의 교육적 공과를 분석하고 각 단위의 욕구를 반영하며 산마을학교의 제3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위원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교육과정에 적용한 선구적 사례라고 자임한다. 장차 특성화학교, 혹은 혁신학교가 담보하지 못하는 대안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 기구로 기능하리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셋째, 학교 전반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학생 자치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초창기의 갈등을 넘어 제2의 설립자의 뜻을 이어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공익적인 학교법인을 만들었다.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진이 이사장의 측근이 아닌 인천 강화 지역의 덕망있는 시민 사회 종교단체 인사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육과정운영과 중요 의사결정은 각 단위별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장도 공모제 형식을 통해 이사회, 교사회, 학부모회, 외부 교육학자 등이 참여하는 교장임용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



어 선임한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일반적인 사립학교의 형식적인 심의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 의결기구로 기능한다. 월요일에는 전체 교직원이 모두 모여서 학교운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목요일에는 교사들이 모여서 학생과 교과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학생총회와 교직원까지 참여하는 식구총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요 안건들이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처리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의 자치문화를 꽃피우는데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그 어느 학교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토론문화와 각종 행사기획, 동아리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외부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학생자치문화 리서치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사와 축제, 문화제는 가짓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더군다나 60명 정원의 적은 학생수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활동하는 25개 정도의 동아리와 그때 그때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명멸하는 비공식동아리도 10여개가 돌아가는 동아리 천국이다. 이 중 자연의 순환원리를 몸소 체험하는 '영농단',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풍물반 '산패', 산마을고 협동조합 '마테', 시사연구동아리 '뭉해'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연 평화 상생의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학생동아리이다.

자치활동은 크게 3개의 기둥이 있는데, 대표기구인 학생회(여러 학생자치기구 조율)를 위시하여 3권분립 체계처럼 기능하는 총회위원회(학생총회, 식구총회, 기숙사총회 관장), 동아리협의회(동아리 관장)는 상호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이루며 운영되고 있다. 여니 학교처럼 학생회(학생자치운영위원회) 중심의 학생자치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결성한 다양한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자치활동이 돌아간다는 차별점이 있다. 학생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와 기획단, 동아리들은 자체적으로 활동의 방향과 1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운영된다. 주체적인 학생문화의 꽃이 만개한 산마을은 '학교생활 자체가 자치'라는 차원까지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어 있다.

• 학생 자치문화의 꽃, '주여시'(주를 여는 모임)와 식구총회

주목할만한 학생자치활동 가운데 하나는 '주여시'(주를 여는 모임)이라는 창체활동시간이다. 매주 월요일 오전 1교시에 진행되는 한주의 첫 시간으로, 다른 학교에서 월례조회나 주간조회를 교사가 주관하는 것과 달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정식 수업시간이다. 각종 학생주도의 계기교육, 공지사항, 개인별, 동아리별, 학급별, 교과별 프로젝트나 수업활동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깜짝 문화공연이 열리기도 하며 고정적으로 건의사항이나 교사 및 학생 알림사항이 공유되는 자리이다. 학생들에 의해 진행되는 계기교육은 모 중앙일간지에서 특집기사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교장이나 교사의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이 철저하게 학생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일지라도 하루 전에 학생회 담당학생에게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기까지 하다. 개인적으로 주여시야말로 산마을 학생자치문화의 총화라고 본다.

또 하나의 특색있는 자치활동은 학생들과 밀접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식구총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학교운영과 관련한 안건을 교사가 올리거나 학생들이 상정하면, 그 안건이 교무회의에 올라와 교사회에서도 논의하고 학생총회준비위에서도 안

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조율하여 총회 자리에서 전교학생과 교사들이 모여 안건에 대해 토론한 뒤 그 결정에 따라 학교의 운영방침이 바뀌게 된다. 식구총회가 학교의 실질적인 의결기구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교장, 혹은 교무회의나 교직원회의에서 학교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넘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도 의결의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하여 명실공히 학교의 삼주체로서 우뚝설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치와 진로

물론 졸업 이후의 진로와 대입이라는 대한민국 공통과업은 그들을 비껴가지는 않아 3학년쯤 되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학교처럼 입시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본격 대입전략을 짜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60% 내외의 학생이 나름 주관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한다. 건강부회같지만 2015년 교육통계상 70%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학교차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거나 보충수업, 문제풀이수업 등과 같은 대입지도로 전혀 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결과로 그만큼 진학을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최고의 당면목표로 삼는 공교육 정상화 모델의 전형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나머지 비진학 학생들은 시민사회단체나 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참고적으로 산마을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에서는 중학교 때의 교과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입수시전형에서 산마을학교가 타학교보다 유리한 영역 역시 학생주도의 다양한 자치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타 대안학교의 교육지표도 자연, 평화, 상생, 자립, 민주, 공동체라는 보편적인 이념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정 기능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라, 특출난 엘리트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삶을 살며 진정한 자아발견과 수행을 돕는 장으로서 학교가 존재하고, 사랑과 평화의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유하고 땀 흘리는 민주적인 과정이 바로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 핵심에 바로 학생자치가 있다.

학생자치활동 지역적 확대

산마을고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가 소재한 양도면의 초중고를 묶어 2015년 '진강산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첫발자국을 내딛었고, 2016년에 지역의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를 설립하였다. 얼마 전부터 조용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안교육의 새로운 장르는 '마을학교'이다. 우리의 전통 서당이나 서원이 그렇듯이,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가 그렇듯이, 전통적으로 대안적인 교육실험과 삶을 위한 실제적인 공적 교육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오래되어 익숙한 유형이지만, 새삼 주목받는 배움터이다. 마을사람들이 뜻을 모아 방과후학교, 계절학교, 주말학교를 운영하든지, 각양각색의 단기중점학교를 지역특성에 맞게 돌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및 꿈의 학교, 서울의 마을결합형학교, 각 지역에서 꽃피는 마을공동체운동의 약진은 '마을이 학교'라는 지극히 평범한 문명사적인 교육담론을 다시금 힘껏 전개할 고무적인 흐름이 아닐 수 없다.



• 글로벌 민주시민교육, 산마을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산마을은 일본의 스즈카 공동체 및 자유노모리(自由의 森) 학교와의 교류, 유네스코 협동학교 활동, 동서양권과의 인적 교류(WOOF)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더 나아가 유럽지역의 덴마크 대안학교(에프터스콜레)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평화기행을 주제로 해외이동수업을 신설하여 2학년 학생들이 해마다 베트남을 다녀온다. 일본과 베트남은 우리에게 인류의 일원으로서 역사적 균형의식을 배우기에 적합한 교류의 현장이다. 모든 국제 교류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교사들은 안내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뿐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고통이 남아있는 강화도에서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여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 소박하게 산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날개짓이 좀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

산마을에는 학생들이 만든 '산마을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 마테'라는 학생협동조합이 있다. 아마도 인천지역 최초의 학교협동조합이 아닐까 싶은데, 행정 처리와 회계 업무의 과중함을 고려하여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학생동아리처럼 운영한다. 전체학생의 80%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교직원 및 학부모들도 동참하여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내 문화카페 및 매점운영, 교육사업(대안사회정기모임, 조합원 사회적 경제교육), 지역사업(마을장터 'sea market',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 참가)등 3개 사업영역을 골자로 출범했다. 설립주체인 학생들은 장차 협동조합이 산마을학교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기여하리라는 일말의 희망도 품고 있다. 그들은 그들대로, 또 산마을의 전체 구성원들 모두는 대안대학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산마을고등학교 주변에서 유의미하고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는 마을공동체로서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3년 전부터 학교가 소재한 삼문마을에서 마을잔치나 마을 화단꾸기를 진행하였고, 특히 올해는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양도면 지역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중이다. 마테의 이러한 지역사업은 고등학생들의 모임임에도 이례적으로 2017년 인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한걸음 더 지역으로 학생의 자치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탈주와 전환의 베이스캠프 산마을

'교육은 흐르는 강물'과 같이 늘 새로움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비노바 바베는 말했다. 그의 신교육운동(Nitya Nai Talim)의 핵심은 나날이 스쳐가는 삶의 내용과 함께 교육 또한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문 사자성어로 환언하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고정된 틀에 맞추다보니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을 놓쳐버리고 만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땀질해 왔던 누더기를 불사르고 그들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의 교육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물처럼 흘러가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과거 인류의 지혜를 조금씩 온몸으로 체인하면서, '교육의 목표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다'라는 피아제의 경구를 산마을에서 온전히 펼쳐내고 싶다. 아직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지만 아이들이 환대받고,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로 듣는 관계가 민주주의이며, 서로 경청할 때 상대를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는 사토마나부교수의 간단명료한 정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고전적 교육명제를 펼쳐낼 학교의 갈 길을 일러준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특히 산마을 학교의 학생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설파한 '클리나멘(clinamen)'처럼 주어진 직선 코스나 관성적 운동에서 벗어나려는 힘을 키웠으면 한다. 인공위성이 궤도를 이탈해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속도와 시선, 동선 등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듯이, 교육이든 삶이든 속도를 줄이고 관점을 바꾸어 방향을 달리하는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기존의 궤도를 탈피하여 중력의 대기권을 뚫고 저 광활한 우주로 나아갈 수 있다. 산마을이 그러한 탈주와 전환의 베이스캠프이면 좋겠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역사적으로 동서양이 유사하다. 학교(school)의 고대 라틴어 어원인 'schola'는 한가함, 우정, 여유를 뜻한다. 즉 '삶을 즐긴다'고 의역할 수 있겠다. 삶을 재미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것이다. 숲, 혹은 기둥이 있는 공간이나 운동장 같은 곳에서 음악을 즐기며 교양을 습득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공자의 '흥어시興於詩 입어예立於禮 성어락成於樂'(시로 흥하고 예로 서며 즐거움/음악으로 이룬다)이라는 말씀이나 '도서관, 시, 자전거'를 공생공락(共生共樂)의 3가지 도구로 제시했던 이반 일리치의 사상은 일맥상통한다. 즐겁고 우호적이고 여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conviviality'를 경험하고 지향하는 곳이 다름아닌 학교여야 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이기를 바랐던 일리치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교사와 학부모, 누구보다 학생 자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며, 변화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도모하는 치열하고 행복한 학교가 다름아닌 산마을 학교이기를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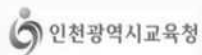
7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정형 위(Wee)센터 사랑나무

초등행복한가정위센터 센터장 김 진 형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정형 위(Wee)센터 『사랑나무』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 가정형
Wee센터 사랑나무



사랑나무 소개



사랑나무 소개



사랑나무란 ?

사랑 안에서 풍성히 채워지고 성장하여 유익함과 이로움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사랑 : 사랑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을 가장 인간답고 참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나무 : 자연의 사물 중 가장 풍부하며 여러 유익한 물질로 가득 찬 보물 창고와도 같다

CONTENTS

1 가정형 위(Wee)센터 개요

- 1) 설립배경
- 2) 목적
- 3) 주요대상

2 『사랑나무』 운영 현황

- 1) 기본개요
- 2) 조직구성
- 3) 서비스내용
- 4) 이용절차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1 가정형 위(Wee)센터 개요

1) 설립배경

- 부모이혼, 방임 등 가정적 위기 증가
- 심리적 불안, 우울 등 개인적 위기 증가
- 학교부적응 및 성적부진 등 학교적 위기 증가

문제점

가정적 위기에 대한 지원 부족

서비스 한계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유 등의 서비스 지원

안전망 구축

기존 서비스 프레임 + 돌봄 + 활동 + 사후관리(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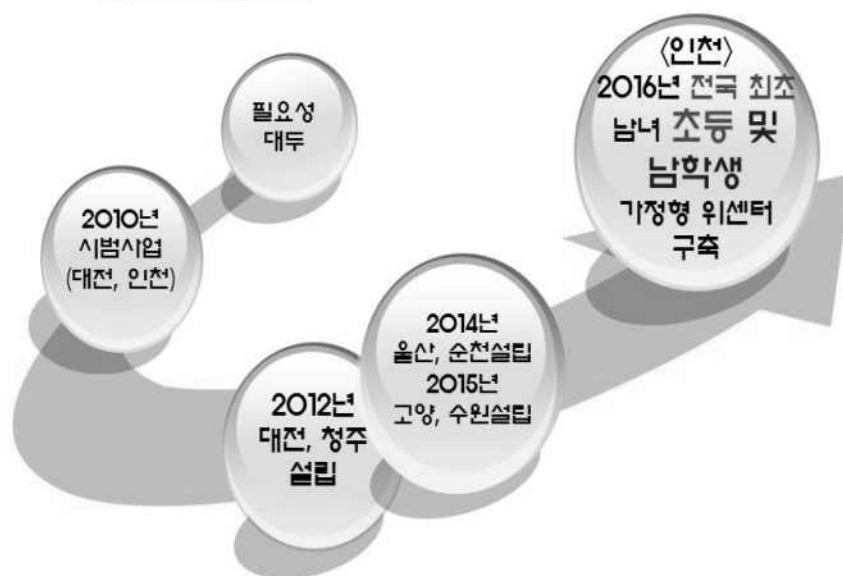
필요성

Wee센터사랑나무



1 가정형 위(Wee)센터 개요

1) 설립배경



Wee센터사랑나무



1 가정형 위(Wee)센터 개요

1) 설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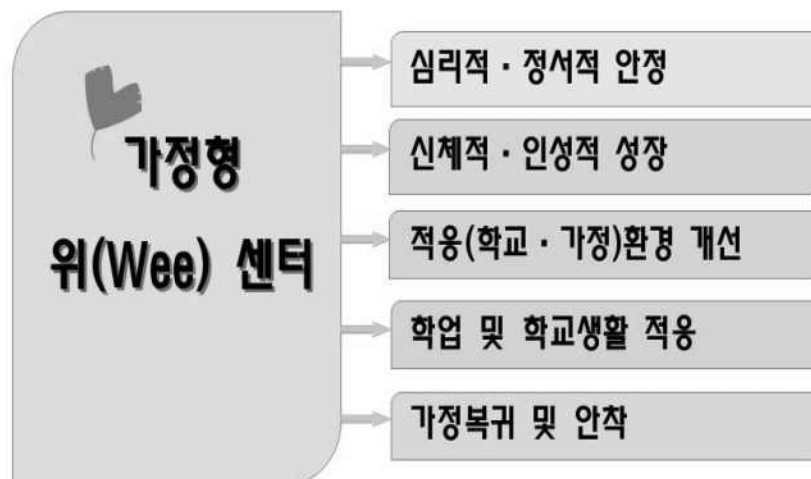


인천행복한가정형위(Wee)센터
Wee센터사랑나무



1 가정형 위(Wee)센터 개요

2) 목적



인천행복한가정형위(Wee)센터
Wee센터사랑나무



1 가정형 위(Wee)센터 개요

3) 주요대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Wee센터사랑나무



1 가정형 위(Wee)센터 개요

3) 주요대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Wee센터사랑나무



2 사랑나무 운영 현황

1) 기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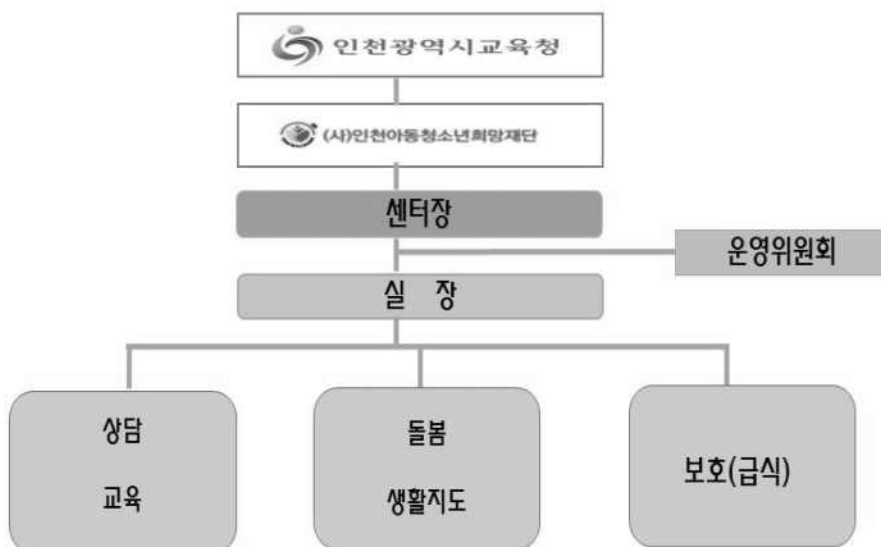
대상 및 정원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25명
운영형태	학교 출석형 (센터에서 숙식하며 학교 출석)
위탁기간	3개월 ~ 9개월 (필요시 연장가능)
운영시간	연중 무휴 (학생 상황에 따라 가정복귀훈련 진행)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사랑나무



2 사랑나무 운영 현황

1) 기본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사랑나무



2 사랑나무 운영 현황

3) 서비스 내용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Wee센터 사랑나무



2 사랑나무 운영 현황

4) 이용 절차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Wee센터 사랑나무



가입소 기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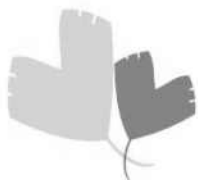
○ 기간 :
입소일로부터 2주간(14일)

○ 내용 :
초기적응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개요

- 1) 기관소개
- 2) 입소학생들과인사
- 3) 환영파티
- 4) 학교생활
- 5) 생활규칙 습득
- 6) 친구사귄프로그램

Wee센터사랑나무



전학절차 안내

▶ 제출서류

- 학생진술서
- 학무모 사유서[서식5]
- 담임의견서[서식6]
- 학교장 요청서[서식7]
- 변경희망고 학교장 동의서[서식9]
- 재학 중 상습기록부 사본
- 질병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해당시)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대상 : 학교장이 추천(요청)한 자

○ 사유 : 교육환경변경 대상자

‘주소지 이전’ 이 아니라 ‘교육환경변경’ 으로 전학 해야 하는 이유?

Wee센터사랑나무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Wee센터 사랑나무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구 분	2층	3층	4층	5층
실 수	3실	3실	2실	2실
사용현황	201호 사무실	< 여학생 생활실 >	< 남학생 생활실 >	북카페 & PC카페
	202호 서고, 생활용품실	301호 6인실	401호 8인실	
	203호 집단상담실	302호 4인실	402호 4인실	
	개인상담실 (2개)	303호 3인실 (주방)		
	교육실	* 여학생 13명 수용	* 남학생 12명 수용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Wee센터 사랑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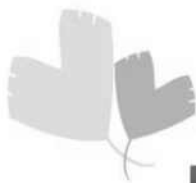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2층
3실
201호 사무실
202호 서고, 생활용품실
203호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2개)
교육실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사랑나무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2층
3실
201호 사무실
202호 서고, 생활용품실
203호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2개)
교육실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사랑나무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2층
3실
201호 사무실
202호 서고, 생활용품실
203호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2개)
교육실



안전행복학교로 만들기
Wee센터 사랑나무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2층
3실
201호 사무실
202호 서고, 생활용품실
203호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2개)
교육실



안전행복학교로 만들기
Wee센터 사랑나무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2층
3실
201호 사무실
202호 서고, 생활용품실
203호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2개)
교육실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사랑나무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3층
3실
< 여학생 생활실 >
301호 6인실
302호 4인실
303호 3인실 (주방)
* 여학생 13명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사랑나무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3층
3실
< 여학생 생활실 >
301호 6인실
302호 4인실
303호 3인실 (주방)
* 여학생 13명 수용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Wee센터 사랑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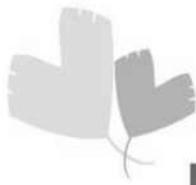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3층
3실
< 여학생 생활실 >
301호 6인실
302호 4인실
303호 3인실 (주방)
* 여학생 13명 수용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Wee센터 사랑나무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4층
2실
< 남학생 생활실 >
401호 8인실
402호 4인실
* 남학생 12명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사랑나무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4층
2실
< 남학생 생활실 >
401호 8인실
402호 4인실
* 남학생 12명 수용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사랑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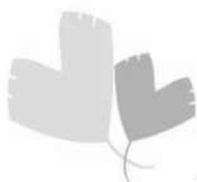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5층
2실
복카페 & PC카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Wee센터 사랑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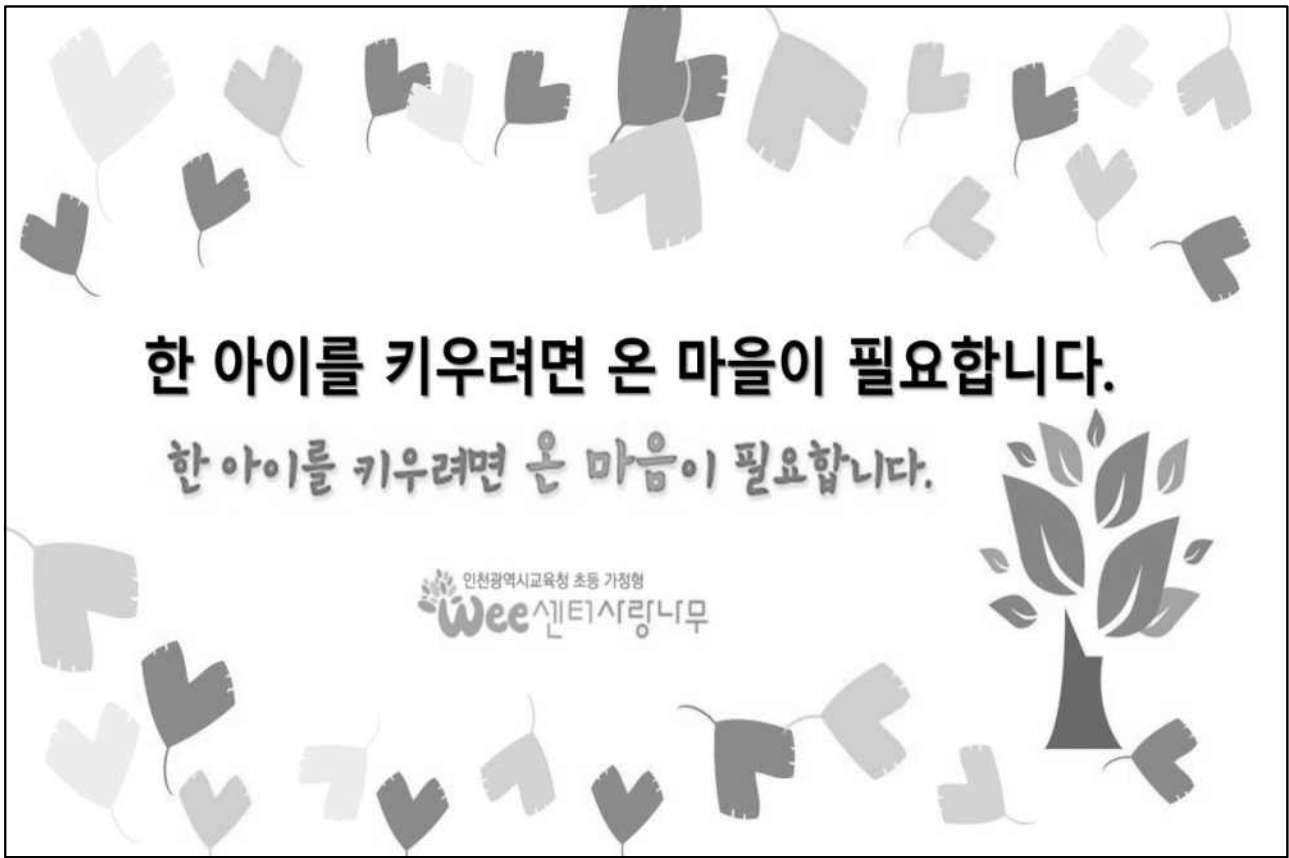


3 사랑나무 시설 현황

5층
2실
복카페 & PC카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Wee센터 사랑나무



8 2017 한오름학교

한오름학교 교사 최 동 석

하나되어오르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육성



2017
한오름학교

I. 한오름학교 학생 특성 분석



인문계 부적응 &
교사와의 갈등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폭력 가. 피해학생 &
교우관계 갈등
(관찰 모방 학습)



가정에서의 불화



병인요인

II. 한오름학교 교육 중점사항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한 체험활동



상담 치료 및 정서안정



소속감과 안정
가정회복

학교에 주인인 학생 스스로!

자존감 갖기

한오름학교

감사하는 마음 갖기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흥미 발견

Ⅲ. 2017 한오름학교 교육과정 - 구성원리

- 나선형 교육과정
- 계열화의 원칙
- 기준지향평가

일반교과

대안교과

- 경험중심교육과정
- 자기결정성의 원리
- 역동적 평가

창의적
체험학습

외부강사
초빙 교육

- 다면적 흥미를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구성
- 문화실조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체험의 기회 제공
- 건전한 취미향상을 위한 평생취미로서의 활동

- 생활안전, 교통안전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약물 및 사이버중독
- 재난안전, 직업안전
- 응급처치, 성(姓)교육

Ⅲ. 2017 한오름학교 교육과정 - 테마 선택형 대안교과 활용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교시	국어(2), 도덕(2), 사회(2), 수학(2), 과학(2), 체육(2), 음악(2), 미술(1), 영어(2), 일본어(2), 진로와 직업(1), MOS(1), 바리스타(1)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Creative 선택	ART 선택	Sports 교과	Project 선택 대안교과	Music 선택 대안교과 활동
6교시	대안교과	대안교과 활동	중점활동		
7교시	학급회의				

Ⅲ. 2017 한오름학교 특색 교과



드론

- 드론을 통해 건전한 취미 향유
- 첨단산업인 드론으로 미래 진로 설정
- 드론조립 관리를 통해 기계메커니즘 파악



라디오 팟캐스트

인터넷 1인 방송시대를 맞이하여 방송매체활용을 배우고, 기계 매커니즘을 활용하고,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



Blessing Day

1년 동안 한오름학교에서 배운 대안교과와 실력을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신감을 크게 고양시킬 수 있게 한다.

2017 한오름 프로젝트 I - 학교의 주인인 학생 스스로!

리더캠프



한오름학교의 리더인 키펄슨(Key-Person)을 리더캠프를 통해 훈련시켜 학생자치를 장려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원활히 함

학생회의 자체 생활지도



핸드폰 수거, 수업시간 엄수, 교칙준수규정에 대한 자체적인 활동

학교 행사 진행



학교의 중요 행사 진행 및 지원을 학생들이 주도하여 학생 의주인의식 강화

각종 자치 행사



각종 자치 행사를 기획하고, 수행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 강화

2017 한오름 프로젝트 II -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회복 하도록 돕는다.



학부모-학생 마음열기

- 대부분 학부모-학생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대안학교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모와의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학부모 교육

-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특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가정에서의 케어를 강화한다.

2017 한오름 프로젝트 II - Family DAY



가족사진 촬영

- 해변가에서 가족간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가족 사진을 촬영하며 단려있던 마음을 열게함



영상편지 / 편지나눔

- 사전에 촬영한 학생과 학부모의 영상 편지교환을 통해 말로 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학부모,학생사이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나눔



해변산책 & 불꽃놀이

- 편지를 나누는 후 해변가를 산책하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불꽃놀이를 하며 해변가의 추억과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게함

2017 한오름학교 중점과제 III - 자존감 갖기



함께 정하는 교칙

- 학교 교칙을 학생과 학부모가 합의하여 정함으로써 교칙을 지켜야하는 규범적준거를 확립한다.



학부모-학생 약속의식

- 함께 정한 교칙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서약함으로써 책임감을 기르고 스스로 교칙에 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안아주기(허깅)

- 매일 등하곳길에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전교직원이 안아주기(허깅)을 하여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2017 한오름학교 중점과제 IV - 감사하는 마음 갖기



카혼 기부

- 동춘교회 송춘희 권사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음악적 성향을 키우기 위해 카혼 15대를 기부하였다.



커피밀 장학금 기부

- 커피밀에서 바리스타 양성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
- 장학금을 활용하여 커피머신을 설치하여 바리스타 수업을 할 수 있게 됨.



바자회 행사

- 2016 우리역사바로알기 백두산 탐방 수학여행을 위해 시행한 바자회에서 한오름학교 재단인 동춘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
- 경비를 감당하기 힘든 학생에게 도움을 줌

2017 한오름학교 중점과제 IV- 감사하는 마음 갖기



부모님께 감사하기

-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꽃다발 만들기
- 부모님께 효도하기 UCC 제작회를 열어 시상



선생님께 감사하기

-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기 행사를 함.
- 은사 찾아 빚기를 통해 스승에게 감사의 인사 전달



우리 주변에게 감사하기

-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교육청 담당자분들께 감사하기
- 우리 주변의 이웃들께 감사하기

2017 한오름 프로젝트 V - 프로젝트 체험학습



체험학습지 선정

-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받는다
- 모여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회의하여 최적모형을 활용하여 결정한다.



체험학습 프로그램 기획

- 체험학습지가 선정되면 체험학습장소에서 관람할 장소를 모색한다.
- 조를 나누어 동선을 고려하여 코스를 짜고, 짜여진 코스는 보드지에 옮긴다



체험학습 발표 및 기획안 투표

- 각 조의 대표가 나와 체험학습 코스를 발표한다.
- 학생 전원이 무기명 투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기획안을 채택한다.
- 선정된 조는 조별보상을 주고, 체험학습때 실제로 코스를 활용한다.

2017 한오름학교 중점과제 V - 프로젝트 체험학습



체험학습지 역사 퀴즈

- Jigsaw2 모형을 활용하여 조별활동을 통해 체험 학습지 사전 학습
- 사전지식에 대한 역사 퀴즈를 출제하여 미션에 활용할 자금 획득



조별 미션수행

- 조별로 프로젝트 미션을 빙고로 부과하여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체험학습 종료
- 미션과정은 조장들이 교사들과 단체 채팅을 통해 실시간 사진전송



최종 목차 도착 및 평가

- 미션수행을 완료하면 지정된 집결지로 이동하여 조별 미션의 빙고완성을 평가하여 시상함

2017 한오름 프로젝트 VI - 지역체의 고른 발달



축구동아리 활성화

- 축구동아리를 통해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습득함
- 친선경기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팀경기를 통해 타인배려와 사회성을 기름



체력측정

- 가천길대학교와 협력하여 체력측정을 통해 현재 체력상태와 지방, 단백질, 수분, 근육량을 정확하게 파악함
- 학기별로 실시하여 체력변화를 가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함



동아리 활동

-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생활 향유
- 스포츠 동아리를 통해 평생 취미로의 스포츠 능력을 기르게 함

2017 한오름 프로젝트 VII - 선진형 출석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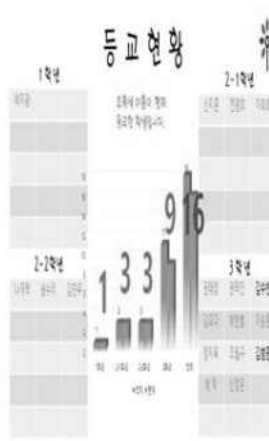
전자카드 학생증 패용



자율적 출석체크



출결 전산화



출석 통계



2017 한오름 프로젝트 VIII-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

가천갈대학교와 협약



가천갈대학교와 연계하여 헬스 수업, 체력측정 등의 활동을 지원받아 한정된 공간에서 체육활동의 제약을 받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체력활동 강화

동춘교회 청년과 멘토링



동춘교회 청년들과 1:1 멘토링을 시행하여 건전한 성인에 대한 모델링 형성

컬트 공방 협약



인근 공방과 협약하여 대안교과수업을 실시하여 지역인프라를 통해 한오름학교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

지역사회 전문기관



금연, 중독, 소방, 경찰, 학교폭력, 약물 등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전문적인 교육 수행

외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강화

한오름학교에 대한 말말말!

교감선생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일주일에 한번 꼴로 체험학습을 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좋네요 ^^

-한오름학교 교사

한오름학교 학생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여서 보기가 좋아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적응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네요.

-한오름학교 인근 주민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말수도 적고 자랑 있는 것을 많이 불편해 했는데, 학부모교육에 와서 보니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있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네요. 처음에 대안학교에 대한 선입관을 가졌던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3학년산입생 김○○ 학부모



“끝” 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저에게 “희망” 이 되었어요.
-한오름학교 3학년 학생의 인터뷰 中

✧ 행정 사항



1 학교생활교육과

안전교육팀 장학사 이재성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철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조치 철저

-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 필요
- 미세먼지 ‘나쁨’단계부터 실외수업 자제 등 적극적인 조치 필요
- 학생들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 위해성과 행동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홍보 및 안내
-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활용
- (체험학습) 계획수립 단계부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 실내 대체프로그램 확보, 야외활동 시간 단축 및 학생안전조치 마련 (마스크 준비 등)
-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는 관리 인력·예산, 부실 관리 시 효율 저하 및 2차 오염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17.4.21.) 안내

○ (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 현장(체험)학습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조

-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청렴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안내

2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팀

[문의전화 420-8313~6]

▶ 학교급식 위생관리

○ 식단구성 시 시기별 취약 식단 배제 및 주의

★ 2011~2016년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예방 방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생건수	0	0	0	2	13	4	0	2	8	0	0	3

***(병원성대장균)**
-숙성김치, 볶음김치 제공
-채소류 세척·소독 철저

***(캠필로박터 제주니)**
-생 닭 교차오염 주의

***(이물질)**
-엽채류 세척·소독 철저

***(병원성대장균)**
-냉방기 가동으로 실내온도 조절

-채소류 냉장 보관
-채소류 세척·소독 철저

***(살모넬라)**
-계란 알껍질 제거 시 주의

***(노로바이러스)**
-지하수 사용 학교
'염소소독장치' 작동 여부 확인 및 점검 철저

-채소 세척·소독 철저
-손씻기 등 개인위생 (종사자, 교직원, 학생) 철저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인지 및 신고

- 평소 보건실에 방문하는 환자수와 양상이 다르거나 설사 등의 증상으로 결석생이 다수 발생 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앞서 매뉴얼 확인 (학교장 주재 관계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급식팀에 문의(고등학교 포함)

- 최근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유행하고 있고, 타시도 학교에서 원인체가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 신고가 계속 보고(3~4월, 9건)되고 있음.

→ 학생 및 교직원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처리 방법 교육

※ 평생교육체육과-7560(2017.05.15.) [게시번호 17-10120] '식중독 의심 신고 시 당부사항 알림' 참고

○ 학교급식 이물 방지 등 위생관리 철저

- 게시번호 16-11357, '학교급식 이물 방지 등 위생관리 철저' 참고
- 학교급식 이물질 발생 시 발견자는 반드시 학교의 관계자에게 신고하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내하고, 영양(교)사는 이물질(증거)을 확보하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학교 밖 음식에 의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체 방법 (오인신고 방지)
 - 현장체험학습에서 제공한 음식에 의한 식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원인 제공 음식점의 관할 구청에 학교가 신고**하여 조치
 - 학생 일부가 **개인적으로** 외부 음식을 섭취 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에는 **원인 제공 음식점 관할 구청에 학부모가 신고**하도록 안내
- 학교 내 급식 이외의 외부음식 반입 금지, 부득이 하게 외부음식 반입 시는 사전에 학교장 승인 및 보존식 보관

최근 외부 음식 섭취 후 식중독 발생

- ○○고등학교에서 스승의 날에 학부모회에서 제공한 햄버거를 먹고 식중독 발생 → 대량구매로 불충분한 가열 또는 보관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대학 체육대회에서 배달된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 발생 → 대량으로 음식물을 조리한 후 10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

- '16년 기준, 캠필로박터(원인식품: 닭 등 가금류 및 난류) 원인 식중독은 5월에 가장 많이 발생

(사례) 조리장 내에서 생닭 등을 세척·조리하는 과정 중에 조리도구 또는 조리대 등이 캠필로박터 균에 오염 →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채소류 등)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교차오염 발생 → 오염된 식품 섭취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무상급식 운영 철지

- 무상급식 운영 중 발생하는 운영비·인건비 부족액 학교자체 예산 편성
 - 연도말 인건비 부족으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회기 중 검토 및 예산편성
 - 잔액 부족 및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정산 철지

▶ 학교급식 운영관리

-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준수사항 이행
 - 「식품위생법」 제5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조리사(면허 소지자) 반드시 배치
- 학교급식 잔식(배식하고 남은 음식) 무단 외부 반출 금지
 - 게시번호 17-9111, '학교급식 운영 관리 철지' 참고
 - 오마이뉴스, 2017.4.20. '인천A초교 남은 급식음식, 무단 외부 반출 논란'

○ 학교급식 운영 시 교직원 별도 식단 제공 금지

- 교직원 등 별도 식단 제공에 따른 조리, 학교 행사 등 급식 이외의 업무에 급식 인력 동원 금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직종교섭 요구사항)

○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와 학교 관계자간 대면 홍보

- 학교 여건 상 식재료 정보공유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사전협의(방문일자, 방문 내용, 면담장소, 면담자 등) 후 학교장 책임 하에 면담 실시

※ 면담사실 관계 기록 유지

○ 조리실무원 노동강도 와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배치기준 준수 노력

▶▶ 「11개 가공식품 품목 세부 품질기준」 사용 협조

- 관련 : 평생교육체육과-7024(2017. 5. 2)

□ 「가공식품 11개 품목 세부 품질기준」사용 방법 개선

- 기존 : 초등학교 ‘의무’사용(단,‘장,류 60%이상 사용),
중학교 ‘권장’사용
- 변경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사용 결정(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 「가공식품 11개 품목 세부 품질기준」

번호	품 목	품질 세부기준	비고
1	국간장	국내산 콩메주, 천일염, 전통식품인증	품목제조 보고서 첨부
2	고추장	국내산 고춧가루(국산 100%) 12% 이상, 천일염, 전통식품인증	
3	된장	국내산 콩, 천일염, 전통식품인증	
4	진간장	국내산 콩, 천일염, 중국 미사용	
5	참기름	국내산 참깨 100%, 벤조피렌 기준 이하(성분 검사서 첨부), 식품첨가물 무첨가	
6	들기름	국내산 들깨 100%, 벤조피렌 기준 이하(성분 검사서 첨부), 식품첨가물 무첨가	
7	볶음참깨	국내산 참깨 100%	
8	고춧가루	국내산 100%, HACCP인증	
9	소금	국내산, 천일염 100%, 6개월이상 간수 제거	
10	밀가루	국내산 밀가루 100%, 식품첨가물 무첨가	
11	현미유 등 식용유	원재료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 열린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통합홈페이지 개선

- 학교급식 제공 식단 실제 사진 공개 철저
 - 한글파일 등 첨부파일 형태로 게시하는 경우 앨범 게시판으로 개선
 -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가 지원센터 홈페이지(helpsve.ice.go.kr)에 요청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 관련 : 평생교육체육과-2921(2017. 2. 28) [게시번호 17-3829]

구분	영양교사 배치 학교수	학교단위 영양교육 실적(학교수)					비고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	미실시	
2015년	214	24 (11.2%)	47 (22.0%)	38 (17.8%)	109 (50.9%)	105 (49.0%)	
2016년	218	15 (6.9%)	33 (15.1%)	33 (15.1%)	81 (37.2%)	137 (62.8%)	실시율 전국평균 88%

※ 영양교사 배치 현황 : 초 179교(80.3%), 중 10교, 고 30교, 특수 3교, 각종 1교

※ 교육부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 '17년 성과지표 : 실시율 90%

- 교육내용
 - 1)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급식안전, 영양관리,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관련교육 및 홍보 등
 - 2)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생 지도
 - 3)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학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 4) 학생들에 대한 위생적인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급식지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등

- 시행방법

- 1) 교육내용과 교육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월별 교육활동 추진계획은 학교장이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 2)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프로그램 등 활용(월 2회 이상)
- 3) 교육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



3 <Brillante 공연단>

◎ PROFILE ◎



Soprano 이슬비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FERRARA 국립음악원 최고 학위 과정(BIENNIO) 졸업
 이탈리아 노르마 아카데미아 졸업
 살리에리 국제 콩쿨 입상
 오페라 <피가로의결혼>, <코지판투떼>, <돈조반니>, <라보엠>, <춘향전> 등
 주역 출연
 현, 영산오페라단 정단원, 인천여중 음악중점학교 출강.



Baritone 오세원

이탈리아 FERRARA 국립음악원 최고 학위 과정(BIENNIO) 수석 졸업
 이탈리아 Montecchio Maggiore, Franca Mattiucci 국제콩쿨 입상
 이탈리아 '토레델라고' 푸치니 페스티벌 초청 오페라 '춘향전, 황진이'
 주역 및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리골렛토>, <코지판투떼>,
 <카르멘>, <불량심청>, <도산안창호>, <선비> 등 출연
 제9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 수상
 대진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 전문 오페라가수로 활동중



Piano 김영미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Roma AMI 아카데미 비엔노과정 졸업
 이탈리아 Rovigo Conservatorio 음악코치 과정 수료
 Porotto 'Giuseppe Verdi' 극장 콩쿨전속반주자 역임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반주강사 역임
 현, 바리톤김동규 DK양상블 전속 피아니스트,
 인천여중 음악중점학교 출강.



◎ PROGRAM ◎

G.Bizet<카르멘> 중 "Toreador" 투우사의 노래-----Bar.오세원
G.Puccini<라보엠> 중 "Quando men vo" 내가 혼자 길을 걸을 때-----Sop.이슬비
F.Lehar<메리워도우> 중 "Lippen schweigen" 입술은 침묵하고-----Sop.이슬비
Bar.오세원

뱃노래 -----Bar.오세원
꽃구름속에-----Sop.이슬비
나물캐는 처녀-----Sop.이슬비 Bar.오세원

<마이페어레이디> 중 "I could have a dance all night"-----Sop.이슬비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Bar.오세원 Sop.이슬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Sop.이슬비 Bar.오세원

◆ 총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
◆ 지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최영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유충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사무관	이재길
◆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김정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이재성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양인영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주무관	지은숙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주무관	임종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2017학년도 관리자 연수

✎ 발행일	2017. 5. 23.
✎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http://www.ice.go.kr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